朝鮮日報 夕刊 九日(月) 本紙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炳淑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紙定價 朝夕刊 一箇月一圓 ...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第三國援助에依한 勝利는絶對難望

絶好의機會다折衝을速開하라

【香港八日發同盟】汪精衛는 去三十日 和平通電을發한때문에 國府及國民黨內部는 勿論 各方面에서 汪의 和平通電을 中心으로 各種論議가 行하고잇든바 中央과 何等意見交換을 行하지안코 突然이 和平通電을 發한데 對하야 非難攻擊을 加하는者가 잇슴에 鑑하야 汪은 다시 八日午後八時 別項과가티 지난 十二月二十八日附 蔣介石及 中央執行常務委員과 國防會議의 意見交換 公開狀을 發表하야 汪의 和平通電이 決코 爆彈的의것이 아님을 明白히하엿다 이公開狀發表에 依하야 蔣介石이 一旦承認하엿든 日本과의 和議를 一年後인 今日에와서 어에 異議를 提起하는 矛盾을 指摘하고 또한 現在의 諸情勢는 日本과의 和議를 講究하는대 가장 適當한 時期라는것을 公言한點은 注目된다

陳公博도 近近外遊

【香港八日發】汪精衛의 國外脫出後 陳公博도 亦是 이에따라 重慶을脫出 이미 香港에 滯在中인바 七日支那人記者와의 會見時 陳은 「近日中에 歐洲로向할 豫定이다」라고 發表하엿다

汪精衛再次聲明

汪精衛

聲明內容全文

今月九日(一九三八年十二月九日) 余는 蔣介石에對하야 目下支那가當面하고잇는 困難은 如何히하야 戰爭을持續할가하는問題이며 日本이當面한 困難은 如何히하야 戰爭을終熄케하느냐에잇서서 兩國이 모두自己의困難을 認知하고잇는同時에 相對方의 困難도 知悉하고잇다 따라서 和平은 決코絶望이라고할수는업다 다시和平問題를 對外關係에서觀測하면 我等에對한 英米佛各國의援助 蘇聯의默諾 獨伊의不干涉은 特히日本의 覺醒을 期待할수 잇게 하리라고 述하엿다 그리고 萬若日本이 武力으로서는 支那를征服할수업고 또東亞에잇서서絶對的覇權을 樹立할수업다는 事實을 認識한다면 和平은 드디어 招來되리라고 述하엿다 余의見解는 當日列席한同志諸君이모두 들엇슬것이다 十二月二十二日 日本政府에서 發表한聲明을 보건대 日本이 支那에對한 從來의態度에 關하야反省하는바가 업다고는 할수업다 想起하건대 昨年(一九三七年)十二月初 南京陷落에압서獨逸大使가 入京하야蔣介石에對하야 述한日本側의條件은最近의 近衛聲明과가티明確하지안헛슬뿐아니라 이에 比하야 훨신苛酷하엿슴에도 不拘하고 蔣介石은 大局을 考慮하야 이條件으로써 平和의 基礎로하고 承諾함을 躊躇하지안헛다 그後日本側은 時日을遷延하야 南京攻略後 다시 條件을提出하엿스나 그條件의範圍는 廣漠하야 그때문에問題는 停頓하게되엇다 그런데 去番近衛聲明에 나타난것과가티 今日에는 이미日本이 反省하고 覺醒하는바가잇다 따라서我國에잇서서도 맛당히이에 聲明으로써應하야 平和交涉의 基礎로하고 折衝에 努力하야써 具體案에 잇서서 相當한 解決點에 到達케 한다면 即、戰局을終熄시키고 이로써東亞安定의局面을 確立할수잇슬것이다 이機會는 實로 다시노처서는 안될機會이다 英米佛의援助는 漸次로具體化하고잇스나 如斯한援助는 我等이 和平을講究함에當하야 有利한地位를占할수잇게할뿐으로 決코戰爭의結果에 影響을미치게하고 軍事方面에잇서서 我等에 決定的勝利를確保함에 充分한것은못된다 이것은 누구나 認知하는바로 이以上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안는다 國際情勢에 關聯하야 말하면 英米佛의 協力을 엇지못하면 蘇聯亦是 何等支那를 援助키爲하야 獨立的行動을 取할수업는것은明白하며 一方獨逸及伊太利도 我方이 和平確立에 着手하면 반드시欣然히 我方과協力하게될것이다 國內에잇서서는共産黨及支那의開放과 國民政府의倒潰 國民黨의崩潰를希望하는少數人을除하고는和平解決에 同情하지안는者는업슬것이다 따라서 余는이點을 深思熟考한後 비로소 中央에向하야 和平解決을 提言한것으로 別書로써 蔣總裁에게 意見을陳述한外 삼가玆에 卑見을披瀝하고 나아가 諸同志가具誠에鑑하야 贊同하여주기를 비는바이다

萬民輔翼을基調로 事變目的을貫徹

平沼內閣施政에一路邁進

【東京電話同盟】平沼內閣은 支那事變處理를中心으로한 內外諸政策에對하야 前內閣의方針을踏襲하고 近衛樞相도 無任所相으로마지하야 名實共히 近衛內閣의延長인 形態를가추고 專혀時局收拾과 來休會再開議會에 備키로된바 爲先政府의陣容整備에 必要한政務官陣容과 參議補充等도 今週中으로決定하고 五日初閣議以來 自由討議의 性質로써 意見交換을하여왓다 閣議도逐次具體的問題를 取扱하야 新內閣施政方針과 內容을 明確히하고 議會를通하야 對內外諸政策의全貌를明瞭히할方針이다 그리고平沼內閣에賦課된 使命은 六日首相의放送에도 顯現된바와가티 一切를擧하야 國家總力을 聖戰目的達成에 集中함을 第一義로한다는原則下에 專혀政策의重點을 國防經濟의 綜合一强化를 中心으로한 綜合國力의充實과 國家總動員體制强化에 置重키로되여잇스므로 前內閣當時 國內革新意圖에서着手한 議院制度改革 貴族院制度改革 選擧法改正 行政機構의改革 其他諸懸案은 國家總力戰體制의 整備에必要한 文官制度改正 企劃院改組擴大等을除하고는 一旦 이를 保留하고 專혀 現實的 立場에서 協力、國內摩擦의 絶滅를 排하야 擧國一致體制强化에 專任할것으로觀測된다 따라서 平沼內閣施政大綱은 萬民輔翼의 政治를 基調로하고 게다가 御前會議에서御治定을 仰한 不動의 國策에基하야 渾然一體가 되야 事變處理方法의 積極化로 向하야外交、財政、文化、各般施策을 이에 集中하고 傳統的 國民精神의 高揚과 國家總力發揮에依하야 今次事變의 大理想을 貫徹코저함에 全力을 傾倒할것으로豫想된다

閣內에서의 近衛樞相地位

【東京電話同盟】無任所相으로서 內閣에列한 近衛樞相의 閣內地位에關하여서는 政府는 그國務大臣인 性質에鑑하야 모든閣議及五相會議其他 重要會議에 出席을求하기로 되여잇스나 近衛樞相으로서는 前首相及 樞密院議長으로서의 立場上閣內에 잇서서도 極히微妙한 地位에잇는關係로 閣議其他에 出席하여도 積極的으로 發言하는일은 업스리라고 보이며 現內閣으로서最高方針의 決定을 要하는 重要事項에 關하여서는 미리 平沼近衛兩相間에 意見을 交換하고 그間의 調整을 行할方法을 取하게 될것이며 通常時에 잇서서는 鹽野、木戶兩相이 雙方의 連絡係가 되어 實質的으로 平沼、近衛聯立內閣의 實을 擧하여가게되리라고보인다

鹽澤中將以下 御陪食의光榮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九日正午前 南支海軍最高指揮官으로서 白耶士灣敵前上陸을爲始 南支作戰에 赫赫한 武勳을 樹立하고 凱旋에 歸還한鹽澤幸一中將以下 歸還將星等을召致하옵시고 御慰勞의 軫念에서 御陪食을 吩咐하옵섯다 天皇陛下께옵서는 海軍御軍裝으로 百武侍從長 宇佐美武官長以下를 陪從케하옵시고 豊明殿에 出御 伏見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도 御臨席 御召致의 光榮에 浴한 鹽澤提督은 前參謀長田結少將外 細川 坂原 近藤 鈴木 齋藤 園田 寺田 後藤 戶塚各軍少將과가티 陪席 米內海相 大角 永野 高橋 藤田 百武 加藤 各軍事參議官 松平宮相 山本海軍次官 古賀軍令部次長 其他 側近者들도 召致하옵서고 午餐會를 御開催하옵시와 一同에 御陪食을 下賜하옵섯다 그다음 다시 千種間에서 一同과가티 茶菓를 잡수시옵고 各將僚의 武勳談等에 關하야 種種御歡談을 하옵시고 天機御麗하옵시게 入御하옵섯다 鹽澤中將以下 各提督은 光榮에 恐懼感激하야 宮中을 退下하엿다

時事解說

匈·체關係의 顚末

英佛獨伊四國協定後 中歐도 一時 小康狀態를 維持할것가티보이더니 지난六日 또다시 匈, 체兩軍의 衝突事件을 惹起하야 年頭歐洲政界에 적지안흔 衝動을 주고잇다 周知하는바와가티 匈체關係가 險惡하야진것은 獨逸의 주데텐地方倂合事件前後의일이다 即昨年九月 獨逸의 주데텐地方倂合要求로 獨체關係가 날로 尖銳化하야갈때 匈牙利도自國人이 居住하는 체코領 地方의 反還을 要求하엿다 그래서 匈牙利政府는 十月二日에 同地方에 軍隊를進駐시키고 同四日에는 同地方의 正式反還要求를 提出하엿다 十月十日 同問題解決交涉이잇섯스나 匈牙利에서는 千平方粁 人口百萬을 包擁하는 廣大한地域을 要求하는데 對하야 체코가 割讓코저하는것은 千八百平方粁 十五萬의 人口가 居住하는 地域에 不過하엿다 兩者의 主張이 이와가티 懸隔하매 十二日에 이르러 交涉은 決裂되고 마럿다 그리고 兩國間의 問題는 獨伊兩國의 仲裁에 一任하게되엿다 十一月二日 「빈」에서 獨伊의 匈체問題仲裁會議가 열이엇는데 이會議에서 체코는 四千二百平方粁의 領土와 七十萬의 匈牙利人 十萬의 슬로박人 四萬名의 루테니아人 合計九十四萬名의 人口를 匈牙利에 讓渡하게되엿다 이結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체코의 大犧牲으로 中歐도 安定되는것가텃다 그러나 匈牙利는 어데까지 滿足한것이 아니엿고 체코도 이에 不滿을 가지고잇섯다 이번 衝突事件의 是非는 아직 判明되지 안엇거니와 어느편에 잇든지 이런 事件은 今後도 얼마 든지 惹起될 可能性을 가지고잇는것이다 여기에 또 歐洲의危機가 잇다 그러므로中歐의 政情如何는今後 한層注目되는바이다

汪精衛公開狀 支那言論界에反響

【上海九日發同盟】汪精衛가 誠意를披瀝하야 同志의贊同을 求하려는 八日發表公開書翰이 當地抗日支那言論界에 再次 非常한 反響을 惹起하야 九日 朝刊에 文滙報、新聞報、大美報、華美報、申報等 支那紙는 一齊히 同書翰內容全文을 大大的으로 揭載하고 中美報 其他 群小支那新聞紙도 모두報道하고잇는바 이에對한 主觀的說明은 아직보이지안흐며 겨우題目에 反汪的傾向을 露骨로表示하고잇슴에不過하다 이는 香港各紙가 同書翰을 全然默殺하고잇는것과 對照的現象으로 言論統一을 暴露하고잇다

多頭政治弊害除去 滿拓改造는必至

日滿移民新京懇談會終了

【新京八日發同盟】今次의 日滿移民懇談會에 잇서서는 移民에關한 一切의 問題를 網羅하고 日滿官民關係者가 移民國策에 對하야 全面的으로 討議한것이나 懇談會에 提案된 現地側의 提案을 보건대 移民國策의 重大轉換을 期하고 잇는것은 否定키 어려운事實로 關係當局의 同問題에對한 動向은 各方面注目의的이되여잇다 即 土地制度에關한 根本的討議를 爲始 移民機關의 整備統合에 依하야 多頭政治의 弊害를 防止하는等은 가장 重大한것으로 滿拓改組問題와가튼것도 當然豫想되엿든것인바 改組는 今後어會議의 成果의 하나로 益益必至의 勢에잇다고 觀測되고잇다 如斯히하야 滿拓은 今後 土地收用事業으로부터 分離되는外 靑少年移民의 訓練을 協和會의 손으로 行하고 다시 移民地의 農政遂行은 政府當局이 이를 行하는때문에 結局移民訓練所及 保險 衛生施設經營等과가튼 事業만이 滿拓의手中에 殘置되기로되며 그 事業範圍의 縮少에 依하야 滿拓經營의 合理化는 急速히實現되리라고보이게되엿다 이와同時에 內鮮移民及 現住民三者의 關係調整及 入植等은 一元的으로 取扱하게될것으로 滿拓、鮮拓의統合도亦是 不可避라고보이게되엿다

【新京八日發同盟】日滿移民懇談會第二日은 前日에이어 八日午前十時부터 新京軍人會館에서 開會 日滿兩國側의 提案에關하야 各各意見을 開陳한바 特히

一、協和會는 移民에對하야 如何히工作할것인가
一、移民問題를 中心으로하야 民族協和를 如何히促進할것인가
一、東亞協同體에잇서서의 日本移民의地位如何
一、現在農民과 內鮮移民과를如何히調整할것인가
一、日滿拓政機關의 有機的統合方法如何
一、土地制度의 具體的運用方法如何

等重要事項에關하야 各代表間에 相當히深刻한 討議가 行하여진結果 今後의 移民政策의 綜合的確立에關하야 多大한效果를내고 午後六時半 三日間에亘한會議를終了하엿다

民主政治를擁護次 獨裁政治에對한戰爭準備

루米大統領의教書內容

【華盛頓發電】루즈벨트大統領은 四日議會에 敎書를보내여 獨裁政治를 痛烈히非難하고 如左히 말하엿다 米國議會는 西半球에잇서서自由와 民主政治를 擁護하기 위하야 獨裁政治에 對한 戰爭을準備하지안흐면 안된다 余는獨裁者에 依하야 威脅을밧는自由와 文明社會를 守護할것을 全世界에 呼訴치안흘수업다 米國議會는 全國民이 獨裁主義諸國에對하야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抗戰準備를 하고잇는事實을 余는國民의사이에 宗敎와同히 뿌리를박고 잇는 宗敎와 民主主義및 誠實을 저키기 爲하야 亦是戰爭을 할것을 宣言한다 한사람을 救하기 爲하야 모든人間을 救할것을 決定하여야 하지안흐면 안된다 西半球를 包圍하고잇는 侵略國에 對抗하야 米國을 融化하기物한 具體策에 對하여 數日中 敎書를 提出할터이다 米國으로서는 平和維持와 軍備縮少를爲하야 國際會議를 提唱할 意思가 잇는바 世界의어느國家가 武力으로써 그政策을遂行하려할境遇에는 國民의安全을지킬唯一한方策은武力以外에업다 神을두려워하고法律의神聖을 信하는民主主義國은 國際間의法律을無視하는 일에對하야는 無關心할수업다 今日의情勢下에는 國防은 다음의三要素를 包含치안흐면안된다 第一은 他國의 不意의 攻擊을 擊破함에 足한 强力한 軍備를 確保함에잇고 第二는 어느 主要軍需産業을 組織하야 戰略的地點에 配置함이요 第三은 國民의 社會的 經濟的 結束을 함이다 社會的 經濟的 프로그람도 國防强化의 一部로서行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고余는 사람을 놀래게할 新奇法律을議會에提出할意思는업다 (寫眞은 루大統領)

地中海問題解決次 四國會談開催案

英首腦部、佛國에慫慂乎

【伯林七日發同盟】체임벌린 英首相及 할리팍스外相은 마침내來十一日羅馬를 訪問하게된바伯林政界一部에서는 英國政府首腦는 訪伊途中 巴里에 들러 地中海問題에 關한英、獨、佛、伊四國會談開催案을 佛國側에 提示하고 極力受諾을 慫慂하리라는觀測이有力化되고잇다 即 英首相等은 오는 羅馬會談時에伊太利側의 佛領植民地返還要求에 關하야 相當히 强硬한 態度로 나오고 獨逸도또한 이를全面的으로 支持할것을 念慮하야 佛國을 說引、四國會談開催를 提唱하야 地中海上의懸案解決을圖하는것이 佛伊의 妥協點에即한意向이라고 하고잇다 그리고 四國會談開催에 際하야는 獨逸은 至今까지 前面에서容嘴하기를 避하고잇든 舊獨逸植民地返還要求를 公式으로 提示할것으로 보고 체임벌린首相의 態度如何는매우 注目된다

英, 國際情勢에對備

濠洲와共同國防計畫樹立

【倫敦八日發同盟】英國政府는國際情勢의 緊迫化에 鑑하야 國防에關하여서는 自治領各國과의 提携强化에努力하고잇는바 航空省은 近近濠洲에 使節團을 派遣하야 航空機의 增産에關하야 協議하는同時에 英濠共同의 國防計畫樹立에當케하기로 決定하고 八日發表하엿다 그리고 使節團의人員에는 最近同樣의 使命을 띄고 加奈陀로向한 使節團團長 레이-氏를 爲始 방크쓰航空次官 롱그모아空軍隊長其他 數名의 專門家일行이보인다

人戰派優勢

東部戰線方面서

【바르세로나八日發同盟】長久히 膠着狀態를 繼續하고잇든 西班牙戰局은 舊臘에 開始된 프랑코軍의 總攻擊에依하야 活況을 呈하고잇는바 바르세로나에 本據를둔人民戰線政府는 人民戰線軍은 마드리드戰線及東部戰線에서 優勢를堅持하고잇는듯 七日左와가티發表하엿다 人民戰線軍은 그後依然優勢를 持續하고 進擊을 繼續하고잇다 七日夜까지에 에쓰트레마두라戰線에서는 스할河를渡河하야 레리다를 占領 세레나地方의 몬테리오에向하야 着着前進中이다 스할河右岸에서 人民戰線軍은 젠카及 附近의高地數個所를 占領하엿다 我軍은 敵의陣地를目標하야 敵軍의逆襲을 擊退하엿다 人民戰線軍이 過去三日間에 거둔戰果는 占領地域六百平方粁以上 多數의捕虜器品及 捕獲이다 또 東部戰線에서는 我軍은 隨所에서 勇敢하게도 敵의攻擊을 擊退하고잇다 프랑코軍에 三次나占領된 마쓰베유高地는 드디어 我軍에게 奪回되엿다 其他高地에서도 激烈한戰鬪가 進行되고잇는데 我軍의 頑强한攻擊에 敵은 甚大한損害를 입고잇다

004399

產業(商工)課長會議

十八日부터三日間

總督府殖產局에서는 來十八日부터 二十日까지三日間 第一會議室에서 各道產業(商工)課長協議會를開催하고 左의事項에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엿다

一、物價調整
一、原皮의配給統制
一、廢品回收團體의指導助成
一、轉換工業의指導助成
一、鐵鋼의配給統制
一、工業組合의指導助成

人·來會

◆辰兆淳氏(總督府殖產局事務官) 九日午後二時京城驛發黃海平南北地方에出張

八面鋒

◇汪兆銘 다시 聲明을 發하야 卽時 和平解決을 要望。

◇曰、前番聲明에서 支那는 戰爭繼續이 難問題요 日本은 戰爭終熄이 難問題인데 兩者가 困難을 서로 알고잇스니 和平解決이 可能하다、하엿다。

◇事實 今後 戰爭이 繼續되면 英米佛의 後援、蘇聯의 援助와 日獨伊의 不干涉이 잇드래도 支那가 이길바 못되고、

◇日本도 國民政府를 崩壞시켜 東洋制覇할 能力이업스니 和平解決은 絶好期라는것이다。

◇언제나 講和를 함에는 兩者의 利害를 論하야 讓步케함이 捷徑。

◇汪兆銘도 政治家라 그論法을 쓰는지 모르나 果然 汪의 聲明이 奏効할가는 今後두고 보아야 할일。

◇匈牙利、체코間 交涉委員會가 成立하야 兩軍이 戰鬪를 停止햇다고。

◇小國들이 싸움말고 合하야 大國에게 當하도록하게。

林伯生免職

【香港八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國民政府는 七日附로써 立法院立法委員林伯生을 免職處分에附하엿다 右는 去三十日 香港에서發表한 汪精衛의 和平通電聲明을 林伯生이各方面에配付한 때문이다

체코國軍又復 匈領웅地方襲擊

【부다페스트八日發同盟】匈牙利 체코兩國軍隊間에 衝突事件이 發生하고잇는 此際 이不祥事件은 다시 飛火하야 七日夜九時 匈牙利 체코國境 웅그바르附近의 小邑 나치게이에를 체코正規兵及 우크라이나 民衆이 襲擊한事件이 發生하엿다 事件勃發報道에 匈牙利增援部隊는 現場에 急行하엿다 그러고 웅그바르는 昨年十月 維也納會談의結果 체코로부터 匈牙利에 割讓된地域이다

우크라이나人暴徒 匈國境守備隊襲擊

【부다페스트八日發同盟】匈牙利체코國境에서는 連日衝突事件이 頻發하고잇는바 匈牙利側에의한 情報에依하면 七日夜又復約二百名의 우크라이나人暴徒가 匈牙利領웅그바르附近의 匈牙利國境守備隊를 襲擊하엿다고傳한다 匈牙利側에는 何等損傷이업시 卽時이를擊退한바 目下雙方에서 代表者를 보내어 現地交涉中이다

政務官更迭方針 今週中에決定

【東京電話同盟】各省政務官更迭에 關하야는 今週中으로 銓衡方針及 各派配定數等 根本原則을 決定하고 이에基하야 人選은 來週初에 決定키로되엿다

五中全會(卄日)開會

【上海八日發同盟】重慶으로부터의消息에依하면 萬難五日로延期豫定되엿든 五中全會는 汪精衛의 出國에依하야 國民政府를 不統一하는 情勢는 이의 遲延을 不許하는形便이므로 國府에서는 極力開會 準備를 急히한結果 今月二十日을 期하야 開會하기로되엿다고 傳한다 그때 汪精衛一派의脫退에 伴하야 黨副總裁는 勿論 黨首腦部若干의 更迭이 正式決定되리라고 豫想되고 參政會議長에는 葉楚傖 中央宣傳部長 後任에는 邵力子의呼聲이 잇다

楡林及延安에 國民黨支部를設置

【香港九日發同盟】當地漢字紙珠江日報報道에 依하면 國民黨은 近近陝西省楡林及共產黨首都延安에 國民黨支部를 設置키로決定하얏다고한다 萬一이것이 實現되는때에는 共產黨側이 主張하는 新國共合作은 相當히 細部에亘하야 實現性을 가지게될것으로보여 極히注目된다

스ヂナール
『痲藥取扱에關하지아니함 モルヒネ、ヘロイン中毒治療劑』
『最新』注射液
鎭痛、鎭咳、鎭痙、鎭靜、
『試供品 無代提供』
製造元 ライオン藥業社 製藥部
發賣元 合資會社 大陸公司藥品部
京城府益善町一一五 振替口座京城二一七五六番

桃屋의果實罐詰
第一等品質 フルーツ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호루-쓰사라다 호루-쓰폰치 蜜柑 櫻桃 鳳梨
各食料品店에잇슴
東京 桃屋發賣

本報江陵支局電話開通
江陵 二一六番

춘강 배상철 선생
春岡裵相哲先生!
관상·사주
觀相四柱

科目及料金
京城府蓮建町二九〇ノ四
春岡門人 一同 白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으로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甲位入選
於農林省小型ディーゼル比較審查
昭和十三年二月二十四日發表
入選機 S型四馬力 H型五-六馬力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ディーゼル
農工移動用

大量製產 在庫豐富
カタログ贈呈
据付小動力用

本機特長
一、燃料費極メテ僅少
二、純冷始動ニシテ
三、取扱容易
四、回轉圓滑
五、作業能率倍加
　 輕量ニシテ移動容易
六、サービス萬全
1·5 2 3 3·5 馬力 4 4·5 5 馬力
5-6馬力 7-8〃 10-12馬力 15-17〃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電話本局一〇〇三番

頭痛藥 테-리ン テーリン

疲勞에 テーリン
製造發賣元 東京小石川區武島町 中村信治商店
朝鮮總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全鮮各地藥店에잇슴

賀正
强精補血古秘方
補血腎氣丸
諸般婦人病仙藥
月經調血丸
製造發賣元
中央製藥社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〇
電話光化門四八〇番
振替京城一五四四七番

大金山에偏重키로 產金政策을轉換

구박맛는中小金山

中小金山의補助는無益한일이라고 獎勵,融資方針을變更

총독부의 국책적산금증산계획은 소화십삼년부터 오개년동안에 칠십오톤을 증산할계획인데 초년도인 작년에는예정계획의 증산량에 달하지못하얏스므로 금년부터 산금증산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의 일단을듣건대 종래는 대중소(大中小)금산을 물론하고 지도장려 혹은 시설비보조 자금융통등 각종으로편을 부여하야왓스나 그동안 식산국산금과의 경험한결과에 의하면 중소금산은 아무리수많이 장려하여도 사무만복잡하야무용의 노력만허비하게되고 실상산금은 극소량에불과하다 현재 소위중요산금은 이백칠십개소가잇고 중소금산은 약삼천개소나잇스나 산금총액의 약팔할이 소수의 중요금산에서산출되고 나머지 약이할이 대다수의 중소금산에서 산출되는 현상이ㄹ 극소량의 산금액을위하야 대다수의 중소금산을상대로 노력하는것보다는 대량의 산금액이잇는소수의 중요금산을상대로 적극적노력하는것이 가장효과적이므로 이번에이를 중소금산에대하야는 총독부가 자진하야 지도, 알선, 보조등의 장려를 하지안키로 계획을 다시수립하는것이다 즉 중요금산은 산금증산에대한 전반적시책을 자진하야적극장려할터이나 중소금산은 업자로부터 간절한희망과 요구가 잇는것에한하야 조사한후 확실한희망이 보이면 다소조력하야 준다는것이다 종래중요금산에대한 표준은 매년평균일천오백돈에 산금십 키로(사만원)가 산출하는 금산은 총독부에 계출하야 록하야 이것을 중요금산에 편입하여왓는데 금년부터는 당서일천오백돈에 십산키로의 산금이 잇다고 계출하드래도식산국에서 사정하야 망량 품위 산금당등이 확실하지안흐면 절대로 중요금산에 편입하지안키로되엿다 그리하야 중요금산은 여러가지 은전을 부여하되 중소금산은 여간한것이아니면 하등의은전을 부여하지안흘방침이다

京城府에또疑獄?

出口勸業課囑託을拘引하고 本町署緊張裡大活動

구일아침 본정경찰서사법계에서는 신춘벽두의 긴장한빛을띄우고 형사대가 활동을개시, 어떠한저를 어덧는지 경성부권업과촉탁 출구정견(出口定見)(ㅅ)씨를 영락정(永樂町)일정목삼십이번지 자택에서 검거하야다 유치한뒤 극비밀리에 취조를시작하얏는데 사건내용은 비밀에부치고잇스나 업무상의 모종대한범죄사실이 탄로된것으로보이며 취조에 따라서는 확대될지도 모른다하야 주목되며 전기 출구는 장기현(長崎縣)출신으로서 일찌기 려대(大連)지역소에서 시장사무를 뭉직하다가 작년 부 권업과시장조사사무촉탁으로 임명된것이다 현재판명된 피해액만 이십여건에 천여원이 치나 된다고한다

問題의國際愛 畢竟은自殺劇

말성만튼 국제연애사건의히로인 종로회관여급은 마침내 음독자살 하엿다 구일오전영시십오분경 시내관철정(貫鐵町)이백사십사번지 김영숙(金英淑)(二七)은 칼모친을다량으로먹고 고민하는것을 족하 김순기(金順起)가 발견하고 곳 부근병원에 입원 응급수당을하얏스나 생명이 위독하다 김영숙은 종로회관여급으로서 일즉 자동차운전수 김완기(金完奇)와 결혼하야 전기장소에서 세방사리를 하고잇는가운데 어느사이에 옥동정(玉洞町)독일인 청년「베르」와 국제연애가매저지게되엿다 그래서 본부와전기 청년사이에 사랑의 싸옴이 버러저서 이래말성을 이르키고잇섯는데 마침내 문제의 주인공이 자살로써 모든것을 청산하려한모양이라한다

仁川海上에大火 重油실은帆船,猛炎中

【仁川支局電話】구일오후두시삼십분경 인천(仁川)부두서방약이십여리 해상에서 초석(硝石)비료 중유(重油)를실고 군산(群山)경유 대만(臺灣)으로 향하야 떠나라든 대판상선(大阪商船)회사소유 태해환(太海丸)—(이천구백사십팔톤)—은 화재를이르켜 지금 자꾸타고잇는중이다 인천서와 소방서가 전력을다하야 소화에활동중이나 배는 불덩어리로 화하엿스며 선원들의 생사조차 알수업다 원인은조사중이다

東亞 開城 참기름 東亞製油所

全日本氷上大會에 朝鮮代表七名을派遣

崔龍振,李明天,金漢榮外四選手 一行은今日戰地向發

朝鮮體育協會主催의第十四回神宮奉贊氷上스피ー드選手權大會는 八日午前十時廿五分부터 漢江里링크에서 열리엇는바 昨報以後의各種目成績은 다음과가트며 朝鮮氷上競技聯盟에서는 都市對抗과神宮大會의 成績을參考로 來十七日부터三日間 上諏訪에서열리는 第十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에 派遣할朝鮮代表選手를銓衡한바 主將을崔龍振君(貯銀)으로李明天(徽文)、金漢榮(咸興)三選手를 正式派遣하기로 決定하엿스며 金健會(新義州)許貴日(平壤)任東赫(新義州東中)三君과 이미 出征中에잇는 松都中學의 金河善을朝鮮代表로 推薦하야 李部七名이出場하기로되엿다 一行은今九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列車로 上諏訪에 向하야 出發하며 監督으로 ○○○이 渡哉하리라한다

【女子二千米繼走】 세파렛·코ー스 1 槿花高女B組(田代仙姬、張靜、李仁九) 四分四九秒 2 槿花高女A組五分三二秒一 3 同德高女 五分三三秒一

【男子二千米繼走】 세파렛·코ー스 1 新義州(李成範、金健會、沈昌燁、任東赫)三分二八秒 2 京城(中東一、金容晩、李明天、崔龍振)三分三〇秒

比島遠征拳鬪軍 第三戰에는全勝

【마닐라八日發同盟】當地에 來征以來 一勝一敗의 戰績을남긴 日本拳鬪代表軍은 七日밤「마닐라」「리잘」스타디움에서 對戰하바 먼저行한 렌스링에는 日本軍이 四對零으로이겻고 全마닐라選拔軍對全日本拳鬪軍은 激戰을 演하엿스나 朝鮮出身五勇士의 ○○○ 全勝하엿다

普專蹴球明日凱旋

【大阪支社電報】全日本實業專門蹴球大會에서 記念할初代의霸權을 獲得한普專蹴球部一行은 그동안意外人氣를 끌고 今九日午前十一時大阪을떠나 歸途에올랏는데 明十日午後一時二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할豫定이다

慶應과東大各勝

大阪招待試球第一日은 八日午後零時에 南甲子園球場에서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慶應 2(2…0 0…0)0 京都大

東京大 8(5…3 3…1)2 關學大

女子籠球에京都優勝

第九回全日本綜合女子籠球選手權大會決勝戰은 七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 東京國民體育館에서 擧行하엿다

【準決勝戰】

山形高女 27(12…15 15…8)16(?) 山形師範

京都府一 26(10…12 16…6)23 新潟高女

【決勝戰】

京都府一 19(9…7 8…8)16 山陽高女

早專러비ー優勝

高專러비ー大會決勝…早大專門部對慶應豫科戰은 八日午後二時부터 花園球場에서 行한바 十一 八로 早大專門部가 優勝하엿다

早大專門 11(0…11 5…3)8 慶應豫科

東京…箱根間驛傳 專修大學軍一着

報知新聞社主催 第二十回東京…箱根間往復驛傳競走는 지난 七、八兩日에 擧行한바 激戰끄테 專修大學軍이 十二時間一分으로優勝하엿스며 日大는 十二時間四十七秒로 二着을占하엿다

運動界人事·集會

▲劉仁山君(前習學專門 ー選手)과 鄭令順嬢의 結婚式은 十一日午後一時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

▲尹龍燮君(前徽文籠球選手)과 韓瑞嬢의 結婚式은 九日正午 太平通府民館中講堂에서 擧行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하ー모니카、二重奏와아코ー디온、 맨돌린二重奏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七時二〇分 講演 ▲同八時 (大)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新作이야기 ▲同九時 京城歌謠

第一放送 ▲午後六時 (京城)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二〇分 (大)國民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大)管絃樂 ▲同八時三〇分(東)端唄 ▲同九 (東)라디오드라마

車輛大量增備

鐵道局의今年新計畫

철도국에서 소화십사년도에게획한사업으로 지난번에 대장성(大藏省)의 사정을통과한것 가운데서 그중요한것은 선로개량공사중 청진(淸津) 고무산(古茂山)사이의 복선부설공사와 차량증비(車輛增備)사업인데 금년에는 전년보담 차량을배이상을만드러내기로 되엿다 그제조수량은 합계삼천이백오십량(輛)가량으로 그가운데서 기관차는이백오십량 객차는 사백량 화차는삼천량이다 이와가티 한해동안에 대량으로 차량을 제조하기는 조선철도국개시이래에 처음잇는 일이다 이것은 근년에 여객의 교통량이 훨신 증가되고 만주와 북지방면으로 내왕하는 여객이 훨신 증가되야 객차가부족하고또한 비상시국판거로 화차를 훨신늘려야만될필요가 잇스므로이에 대한 예산은 총독회 사정을받게된것이다 이예정수효의 차량이완성되면 여객이나 화물수송에 훨신 수월케되리라한다

農振委員會

삼일오전열시반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금년최초의농촌진흥위원회를열고 위원 삼십여명 간사 삼명기타관계관이 참집하야 주로작년말부터 각위원이분담하야 전조선각지방의 시국하의농촌진흥운동실정을 시찰하엿섯는데 그보고를기초로하야 의견을 교환할터이라고한다

一錢짜리새돈

아루미늄으로맨든 일전짜리새돈이 구일 조선은행에 일만구천원이 도착되엇스므로 조선은행에서는 각은행에나누어 내노앗다한다

北日本에暴風雪

列車運行에大混亂

【東京電話同盟】칠일밤부터 북해도(北海道) 상월(上越) 북월(北越) 신월(信越)각선을 휩쓰른 폭풍과 눈은 아즉도 맹렬하야 각열차의 운행에 큰지장을 보이고잇는데 구일오전여덜시에야 겨우 신석(新潟) 신진(新津) 장강(長岡) 고전(高田) 직강진(直江津) 경계해진(津) 금택(金澤)일대만은 제가되엇는데 제설은아즉도 못치지안코 오우선(奧羽線)은 아즉도 각열차마다 백분내지이백분 북월선은 이십분내지 칠십분 신월선은 백분전후식 각각늣게운전되엇다 그리고 팔일이후 전혀불통되엇든 상월선은 구일오전다섯시십오분 제칠백삼호열차로부터 개통되엇는데 이것역시 유십분전후가량지연되고 청삼(靑森) 함관(函館)간의 연락선은 팔일 하행선 한번 상행선 여섯번의 암북선이 취항하엿슴으로 다른 여객선 화물선은 결항하여 내지 북해도의 연락은 거이 절단되고 판보합선은 이십분 내지 칠십분혹은 백분내지 삼백분 천대(川內)본선은 오십분 전후 실난(室蘭)본선은 오십분씩 느젓스므로 파계당국은 복구에힘쓰고잇스나 복구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걸릴 모양이다

殊常한登樓客 窃盜로判明

구일오전영시반경 용산서원이미생정(彌生町)유곽거리를 순행할지음 거동이수상한소년이 지나가므로 불러로이치하고 취조하여던바 주머니에 여자용금반지두개, 팔목시게세개외에 현금사십원을 여자용지갑을가지고잇서 추궁하엿더니 유곽유녀들에게서 절취한것을 자백하엿는데 이는 부내제기정(祭基町)일백이십육번지의일백칠십이호 철도국열차『뽀ー이』조경남(趙慶南)(一七)으로 매일밤 미생정을비롯하야 신정(新町) 병목정(並木町)등 유곽에드나들고서는 유녀의 금품을 절취하엿다는바 여죄가 잇슬듯하야 취조중이다

證明업는移民監視

滿洲側,鴨綠,豆滿兩江岸에辦事處開設 朝鮮서도對岸에職員을配置

작년에 개최되엿든 이민사무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선농민의 만주이민취급요강에 따라서 만주국에서는 이주증(移住證)을 가진사람은 적극보호하지만 이주증을 가지지안흔 조선농민은만주국에들어가지못하게하고저 이번안동(安東) 즙안(輯安) 장백(長白) 개산둔(開山屯) 도문(圖們)의 다섯곳에 척정변사처(拓政辦事處)를설치하고 대채십일월부터 사무를개시하게되엿다 총독부로서도 어에연락협조하야 조선농민이만에비합하야 만전의조치를 강구하고저 다음과가튼 대책을결정 칠일 각도에이를통첩하엿다

一、만주국 척정변사처 설치개소에대한 대안에는 각각신의주(新義州) 만포진(滿浦鎭) 혜산진(惠山鎭) 상삼봉(上三峰) 남양(南陽)에 도직원 또는경찰관을 총독부 촉탁으로근일중에 상주하기로 되엿다

二、상설직원은신의주는도직원한명씩 기타는경찰관한명씩

三、국경선의 취체는 원측으로그도가 이를담당한다

四、만주국측의 변사처 설치개소중에 안동과 도문에 가장 만히이수하는 이월부터 오월까지의 네달동안 안동에두명 도문에는한명의 임시총독부촉탁을배치할방침이다

五、그리고 필요에 따라 총독부외국구직원을 출장시켜이를 응원시키기로되엿다

大作「春香」과彌勒

新春美術界朗話兩題

우리미술계의 거장이당양화의 김은호(金殷鎬)씨와 조각의 김복진(金復鎭)씨가 신춘에들면서 천세에 남길대작을경영케되며 미술계에서 뿐만아니라 듯는사람으로하여금누구나 귀를기우릴만한 이야기꺼리를만드러지고잇다 김은호씨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고전문학의 춘향전(春香傳)의 춘향의 영정을 그리어전라북도 남원(南原)춘향의 사당에모시게되고 광한루(廣寒樓)와춘향의 이야기를비저내는 전자에 키가삼십구척이나되는 미륵을만들어섯는데 이번에는 은진(恩津)미륵보다 커가크기로는 현년미륵이될삼십척의 미륵을 만드러내게되엿다 ☆

聰明한春香을 廣寒樓연祠堂에安置키로 以堂金殷鎬氏着想

춘향이를 그리게된동기는 호남에(湖南銀行)두취 현준호(玄俊鎬)씨와 식산은행(殖産銀行)두취 임번장(林繁藏)씨가 작년에 남원에들어와있을때 춘향의 사당 을 하고 영전도 새로그리고 팔기로된것이다 이것이 너무초라하니 춘우도 이되어 김은호씨에게 촉탁케된것이다 씨도 또뜻이잇서 무엇을 기례하며 두고 두고 연구해오다가 팔일에는 그고전연구가로 김태준(金台俊)씨를 청하여 여러분에게 이여선(李如善)씨 기타 어떤춘향이를 그릴것이냐 하는데에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엇을바잇섯다 그결과 씨는

一、우선 처녀 춘향이를 그리되 명랑하고도 총명하고 의지가강하야 절개잇슴씨를그릴것

二、옷은 그시대를가리어 입백의 칠십년내지이백년전의 풍속을참고하야 당홍치마의 연두저고리를입히는데 견치마에 ○○는

三、물론 미인일것이고 안존춘향이보다 서인는춘향이가 더조타

은저고리에 회장달고해서 아주양전한에새씨를그릴것

는 대략한결론을어더 김씨는 곳첫번의될호인 남원을차저 다시연구를거듭하야 사월까지에는 완성하려는것이다 씨는 금세요 근년에는점하야 소설연국, 활동사진등으로 너무유행이되다 저속한 춘향이를 그리는이들이 만흔데 정성스러운 춘향상을 만들겟다 한다

厚德한彌勒佛 恩津彌勒보다훨신더크게 巨匠金復鎭氏손으로

김복진씨가 이번만들려는 속리사의 미륵은 키가 삼십칠척의것이라 은진미륵의 오십오척키보다 다섯자나 더큰것이다 겸하야은 진미륵은 크다란 갓까지 쓰신키가 오십오척이엇는데 비하면이번것은 받바까고신 머리라 실은 키가훨신 더큰 미륵이될것이다 김복진씨는 통경미술학교 조각과를졸업한 우리미술계의 거장으로 불상조각에 특별한연구를하야 그동안에도 김제(金堤)금산사(金山寺)의 부탁으로 삼십삼척의 미륵을 만들어노흔곳에 세원든 일도 잇섯는데 이번에 다시 조선서는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보기드물게 큰것을 제작키로되엿다 제작은 금년봄부터 이개년간에이만원경비로 연인원약팔천명의인부를사용하여 완성키로 되엿다 재료는 콩크리트로 하는데 다루기가 어려운 콩크리트를 하는것으로 동양의외에스라의 리(?) 이러재료로만들어보다고한다 씨는 다소험이잇습니다 조각이라기보다도 건축에가깝다고도 볼수 잇는데 금산사미륵은 서울서 만들엇는데 이번은 속리사에 가서제작케됩니다 첫째근세의 미륵은체격이 그리조치못한데 불안이잇습니다 이번것은 체격이건전한 미륵을 만들려는데 옛날 우리조각으로말하면 신라(新羅)것에 가까운것이될것입니다 그렇게말햇습니다 고결론을말하엿다 (사진은김은호씨) ☆

속리산법주사에는 근세에 만들어 주 俗離山法住寺에서는 보은(報恩) 속리사(俗離寺)에 밋지기로되엿 다 한편엔 정절이고매하기로고금 에 춘향이를 그린다는게 여간일이아닙니다 하여야 조선춘향이를 그려볼까합니다 (사진은김복진씨)

獵銃을誤射 따라가던少年을殺害

팔일오후세시쯤해서 영주군로해면상운리(楊州郡蘆海面上雲里) 권중오(權重五)씨의장남 운돈(雲敦)(一七)이라는 소년이 매칠그부근산에 산양을하려온 부내복미정(北米倉町)구십삼번지에 사는 서대병원의사 상천박미(上田博美)(三七)씨를 따라 산양하는구경을하고잇섯는데 전기상전이가 산비둘기한마리를 맛치승오로소변이 이를집으라고 쫏차갓스나 총알이 싹마저서 비둘기가 뛰어무렵날러가는것을 소년이압서 고 산양꾼이뒤에서 쫏차가던중잘못하야 상전이가 업드러지는 바람에 가지고 잇던 산양총이 잘못 발사되여 약 십미돌 압서가든 소년의 가슴에 명중하야 소년은 즉사하고 말엇다 이급보를 들은 소편창동(倉洞)주재소에서는 경관이현장에 달려가서 엄중히 조사를하고 상전이라는 산양군은 과실상해치사죄로 엄중취조를하엿는데 불의에 참사를한 전기권소년은 오직그를 외인오로써 돈을벌며 집안식구를 먹여살리던 착실한 소년이라고한다

同德高女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蒙古에七百七十八미리 滿洲東部及朝鮮에七百七十六미리를示하고 잇는데 滿洲西部에는低氣壓이잇고 또 北海道東海上에는 優勢한 低氣壓이잇스나 半島의中部는 눈 이오나 其他는大槪개엿고 滿洲天氣도조타 西日本은 개엿고 關東以北은눈오는곳이 만타

豫報 今夜는흐리고 비가올 듯하며 明日은흐렷다가개인다

昨日最高 零下二度八

同 最低 零下十六度三

九日朝最低 零下十一度六

同正午 零下六度五

餘滴

가는것도 보통잇슬때보다는 한층바쁘다 바쁜이세월에 군자라고 뵐러내기위해서 우신 ○○길이나섯길을 피해가면서까지 큰길을차저서 돌아갈것도업다 ▲그러나 지금은 바쁘고 복잡한때라 부득이 즈름길이나 샛길을 찰라가지안흘수도업서 거리에 나서면 길도 만히 생겨거니와 다니는사람도 출고 어두운 뒷골목을 다니는것쯤은 의례히 잇슬것으로 생각하고잇다 ▲그래서 사람 사는 법도 여러가지로 만코만흔데 그때문에 샛길로 만 빠저다니되 안전여부를 막론하고 허덤이든가 도리어서 묘한 수만꿈꾸다가 잘못섯되도는수가 얼마던지잇다 ▲말하자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이모두 샛길중에도 어두운 골목으로 만 풀려 다니든친고들이은 황한겨 도 업거니와 그래제법 점잔라 든 신식군자인 신사라는 분들 중에 악한마음은 업시라도 샛길로빠저나가서 잘되려다가 큰 실수하는 어리석은 일이또만타 ▲그러므로 더불리가려다가오 히려밋지못한다는 말도잇는것이 거던 사내장부는 정정당당히 큰 길로가는것이다

군자는 큰길로다닐것이라고 엿다 ▲바쁘면 즈름간로도가고 샛길로 빠저나

왜高貴藥을無代로 進呈하는것인가요?

婦人藥中에서全快者가만흔

이만치自信잇는良藥을 지금곳愛用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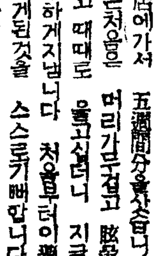
全快者로부터日日보내는感謝의書狀

襲來하는極寒、厥冷이 婦人病을惡化시킨다!

藥 美神丸이元祖입니다 無代로 進呈하기始作한것은 婦人病으로 苦生하는분들이라도 더救濟하려고하는 眞實한信念으로 商略을 떠나서 試用해보고 效力을確認한분에게만 사용시사는 생각으로全然 奉仕的眞意에서 입니다.

婦人病은 複雜한原因으로 發病합니다마는 特히淋菌梅毒等이 感染한경우의 手當은適藥의選定을 一步그릇치면 큰일입니다 美神丸은 이미數百萬人이 效力을實地로體驗하야 全快者가만흔으므로 뭇어날꺼判으로 苦心研究七個年에 三百年來傳統의 秘法우에 加해신만치 專門醫도感心하는 殺菌力 消毒作用이 病原部의 炎、止血、保溫으로部分泌促進作用이 속까지直接浸透하야 高層케全快시키는 美神丸은 病患者에幸福을 주는것입니다

主人이出征後에



試藥을 使用해보고 그效力에놀내여 바로一里半이나 떠러저잇는藥店에가서 五週間分을사왓습니다 나는처음은 머리가무겁고 眩暈이잇고 때때로 울고십더니 지금은ㄱ 런일도업고 每日明朗하게지냅니다 처음부터이藥에 속지안코 買藥을쓰게된것을 스스로기뻐합니다 出征한主人의 留守도나아서 近近退院하게되는데 내가이러케 健康해진것을보고 얼마나기뻐할가하고지금부터 집꺼하고잇습니다 남에게복그러운일이업시 혼자서治療한것도 한가지기쁨입니다

岡山縣淺口郡黑崎村 大島冬子

藥의選擇이肝要합니다

專門醫의手當과

藥의 選定을잘못하면 病도덧치고 費用도만히듭니다 外傷만本藥을 흠내며 坐藥이나 挿入하야 十分도못되여서 녹아흐르고속의子宮파卵巢에는藥기운이안가는飮한擬球、局部的疾患에 藥기운이안가는 內服藥 대리는 藥等은 아무리加療를해도 效力이 나타나지안습니다

가 라 야 病患部에直接作用하야 根本的治療가됩니다 실로 苦心하야製造한 藥인만치 使用도極히便利하야 한번使用하면一球가七日間效가잇고旅行事務中에도不便업시 쉽게一日五錢의 싼費用으로治療가됩니다

帶下 月經不順 足腰의厥冷、頭痛、眩暈、上氣오금뚱기고 經道히스테리ー夫婦間의不和 子福이 업는분等은 맛친藥인本劑를

僞造와類似藥

너무도美神丸의 評判이조흐므로 이러한類似藥이나 或은 利益만을目的으로하는 藥이 나타나기 시작하엿스나 本劑는 모든 것이 잘된것이나 참으로대단히 香가잇서서 한입이나 어리藥을選定 하시도록 注意하시요

一日一圓二圓의 비싼治療代는결국 나을때까지 效果를못보고 斷念시키고 설사 一日十錢以內의 治療費라도 藥 이 粗製여서는 못씁니다 製劑者의 高潔한 人格과 研究熱心이 무엇보다 重要하며 本藥은

便利한註文法

有名藥이라 全國藥店에서 販賣하고 잇스나 本舖로直接注文하실때는 近處郵便局에서 振替大阪五七番에 代金을 拂込하시던지 爲替送金이면 安全 急한분 은 代金引換으로 보내고 써서葉書로 내여주시면 送料는本舖에서負擔합니다

藥價 五週分 一圓八十錢 十週分 三圓五十錢 六十週分 十五圓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堺筋 本舖 宮內善進堂 振替大阪五七番

朝鮮日報에서 보앗다 하고 美神丸 試藥見本과 婦人의衛生書를 進呈합니다 郵券내주시면 送料도 밧지안코 急送합니다 지금곳 葉書一枚에 郵便番號 하시

無代進呈

全快者の多い婦人藥

美神丸

「一球が一週間夜晝絶えまなく効く」

喘息

천식 완고한기침

注射以上의 高貴藥劑!

主要効能

氣管支性 천식

心臟性 천식

氣管支 카타르

感氣 百日咳

기침諸症

多年苦心發明한 本劑를 지금곳服用하야 무서운 病魔를退治하시라

「스페로인」은 全國藥店에서 取次販賣합니다마는、萬一品切될때는 直接本舖로申込하십시오

藥價 二日分六十錢、六日分壹圓、十五日分貳圓、卄五日分參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

代金引換의送料代金引換은 ... 四十五錢을要함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丁目 發賣元 東亞藥園 振替大阪七五一四番 電話天王寺四〇一五番

스페로인

◎가짜가잇스니 「스페로인」이라고하시기를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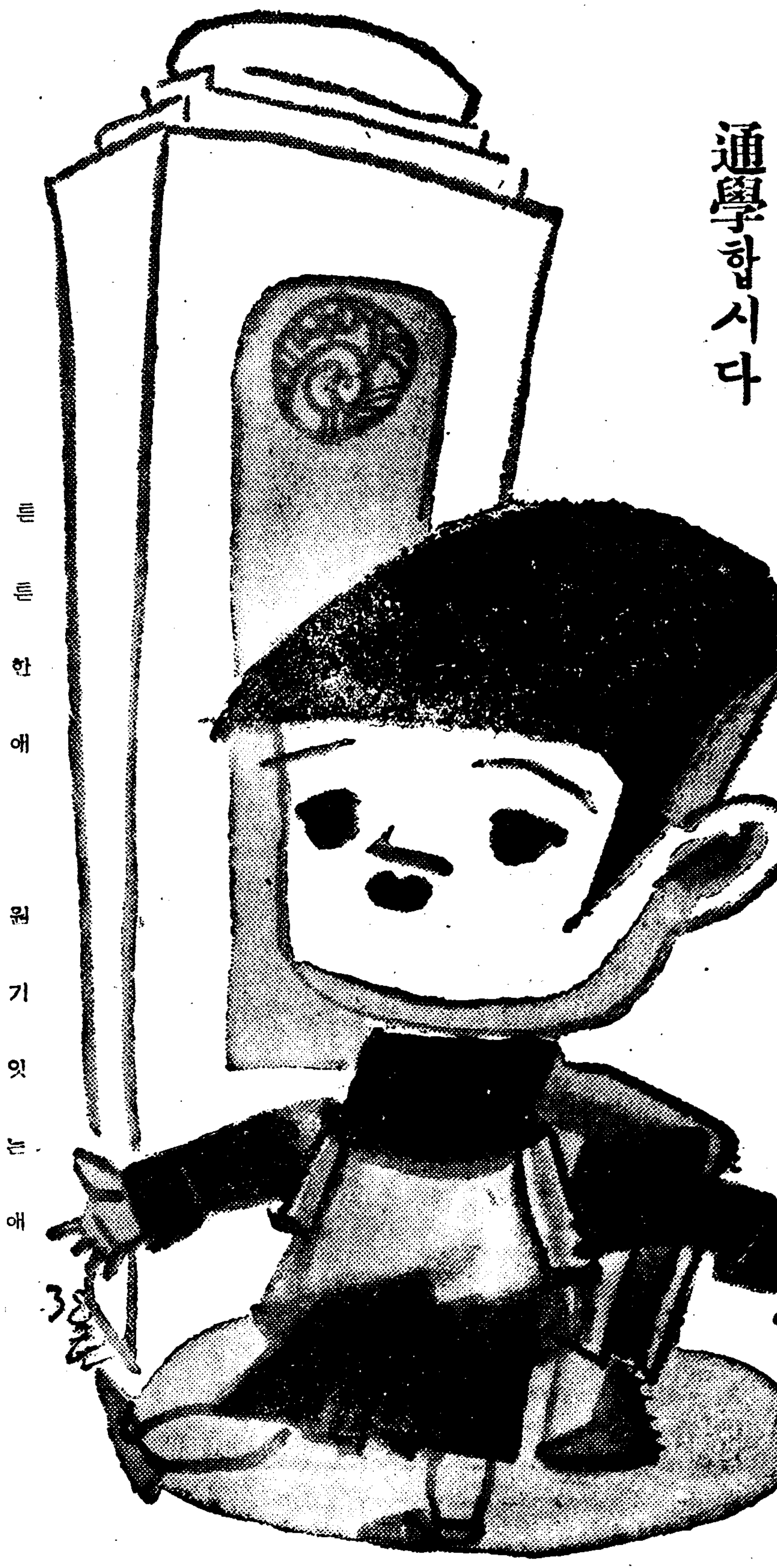
兒孩들이 질겨먹는・조흔 强壯劑

ポリタミン

포리타

【아미노酸・비타민綜合劑】

今年도元氣잇게
通學합시다



呼吸器가弱하고 微熱이繼續하고盜汗을흘리고 頸部에멍어리가잇는等의體質을가진아해를그대로버려두면結局은結核으로죽는수가잇습니다。그러나小兒結核은大人의경우와달라서早期에處置하면比較的速히恢復하는것인故로이런兒孩에겐速히强壯法을講究해야될것입니다

强壯劑로서 第一조흔것은榮養價가만흔것胃腸에도有効할것먹기쉬울것의三拍子가초운것으로이條件에合致한것은ポリタミン입니다。即本劑는榮養價가豊富한『牛乳蛋白』을消化하야어든貴重한榮養源아미노酸에비타민B를配하야 効果의完璧을期한 甘美味한製劑입니다

胃腸이弱하야 肉과卵等을먹어도 充分히消化가안되는경우에도ポリタミン이면(그主成分이이미消化가된아미노酸인故로)그대로吸收되야榮養이되고 또食慾이나게하고 胃腸을튼튼히하는故로 서로어울러體重을增加하고 血色을조케합니다。그리고아미노酸에는 細胞를賦活하야 全身의抵抗力을强케하는 獨特한作用이잇습니다。

感氣에備하라 腺病質의兒孩는 感氣에걸리기쉬울뿐아니라 感氣로부터 結核과肺炎을 惹起할危險이만흔故로 父母로서도 特히注意해야될것입니다。咳嗽를신킨다던가 防寒法을講究하는것도 조치마는 積極的으로 榮養을充實하야몸의 抵抗力을强하게하는것이 肝要하며ポリタミン은이에適當한强壯劑입니다。

小瓶(一圓五五錢)
中瓶(二圓五〇錢)
大瓶(四圓五〇錢)
各地藥店、百貨店藥品部에有함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淵上通 武田榮養化學株式會社

39(1)30

武田發賣

皮膚滲透性の强い榮養クリーム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크림

물일에는…… 어心得

『저분은물일까지하는데…… 저러케히고부드러운손을가지고잇다』고 생각하는婦人의鏡臺에잇는것이クラブ美身크림입니다 호르몬에依한皮膚强壯法인故로거칠고、트는것等은問題가될까닭이업습니다。

세찬나람에는 健康化粧을!

『그러케치운데나갓다왓는데이러케살결이고아젓다』고化粧을지운뒤에感心하는것이健康化粧입니다。치위를모르고살거칠음모르는비결은속クラブ乳液으로健康化粧下를만들고、다음에クラブ美身크림의白粉下그우에クラブ白粉을써발라주십시요。

스키ー에禁物 눈에거는것살거침

『準備하고와드리면조홀걸』하고每年반드시스키ー行의여러분이말삼하시는것이クラブ美身크림! 그만치눈에거는것은얼굴이숭하고クラブ美身크림을조금만쓸지라도그에反하야紫外線應用의아름다운健康化粧이되는까닭입니다。

ホルモンによらねは持續的な効果がない
(호르몬에依치안으면 持續的인効果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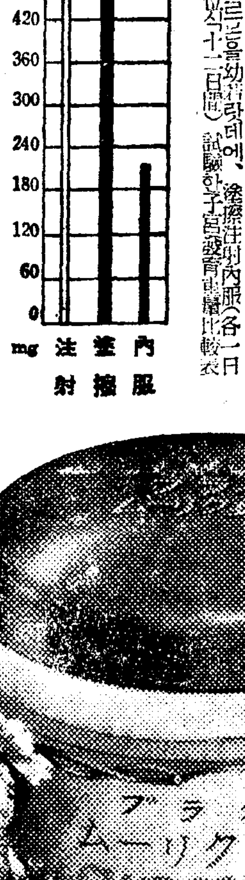
只今이야말로 호르몬크림의 効果를잘알때입니다。普通美容法으로는、도저히皮膚內部까지 健康强化되는것이안입니다。조금한물일이나 洗顔을하는것쯤으로 곳猛烈히살이거칠고、트고、어는것은 그까닭입니다、此際持續的인 젊어지는効力이잇는 クラブ美身크림에依하야 호르몬健康法을 해주십시요!

★クラブ美身크림을 使用하시면 左에明示한實驗表와가티 皮膚滲透性이强한 호르몬이皮膚內部에吸收되야 훔뿍榮養이되는것입니다。그럼으로潑剌한 濕潤과彈力으로 살이거칠고、트고、어는일은 그림자도 안뵈이게되고、주름과느러짐을 末然에豫防해 버리게됩니다。實行하시와 이効果를 보아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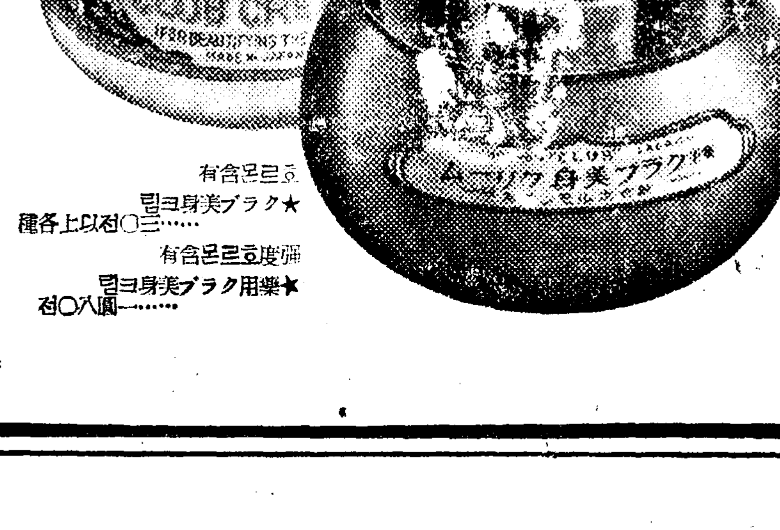
★이クラブ美身크림을 白粉下로쓰시면 健康化粧下가됩니다。特히 스키ー하실때쓰시면 눈빗에거는것을 防止함은 妙함니다……

注射에匹敵한……
クラブ호르몬의威力

特許의綜合호르몬흡効라에、塗擦注射內服(各一日二回・五〇單位식十二日間)試驗한子宮發育의量比較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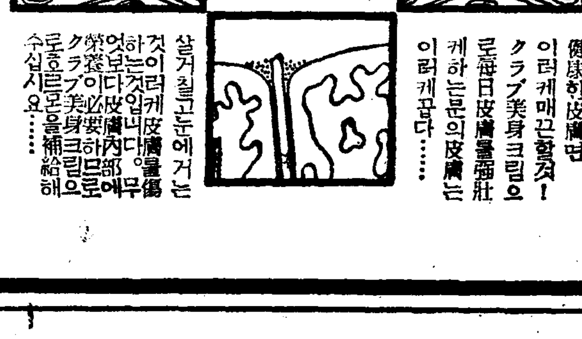


クラブ美身크림과クラブ乳液等에應用한專賣特許의綜合호르몬은皮膚塗擦에依하야皮膚로부터滲透하고、注射에匹敵한옮어지는作用을가지고또各種의皮膚疾患의治療에顯著한効果를가지고잇습니다。右表는動物試驗의一例입니다



★クラブ美身크림 호르몬含有 三〇전以上各種……
★業用クラブ美身크림 强度호르몬含有 八圓〇전……

여러분의皮膚는……
어느것에該當합니까?



健康한皮膚면 이러케매끈할것! クラブ美身크림으로每日皮膚를强壯케하는분의皮膚는 이러케곱다……

손질을잘못해서 이와가튼지기름때가氣孔속에 ... 살이거칠고 ... クラブ美身크림 ... 맛사ー지를꼭 ...

살거칠고눈에거는것 이러케皮膚를傷하는것입니다。무엇보다도皮膚內部에榮養이必要하니クラブ美身크림으로 호르몬을補給해주십시요……

C—74

라디오 週間

管絃樂【九時】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에마누엘·멧텔

一、第一交響曲 —보로딘曲—

第二樂章에서 『보로딘』의 『제일교향곡』제二악장 『스켈쵸』의 『트리오』의 부분에서 대단히쾌활한 그리고 박자(拍子)의 변화가 무궁한곡입니다

二、交響組曲 —림스키·콜사코프曲— 『세헤라자-드』作品三五

유명한 『아라비안나이트』야화(夜話)를 소재(素材)로하야지은 표제악적(標題樂的)인교향조곡입니다 『로맨틱』이며 괴기적(怪奇的)인구상(構想)을 변환무궁(變幻無窮)한 수법(手法)으로 독특한 효과를표하는것인데 그중 二곡

(가) 『카렌다-』왕자(王子)의이야기 『살탄』에대한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진(純眞)과 겸양(謙讓)한 마음으로 여러나라를 편력(遍歷)하는 회교(回敎)의고행승(苦行僧)의이야기

(나) 젊은왕자(王子)와왕녀(王女) 서정적(敍情的)인 민요풍(民謠風)의두주제(主題)가 서로어울려져 대화(對話)합니다 소근거리는것은왕자 듯는이는왕녀 끄트로 『크라리넷트』의 감미(甘美)한독주가 사랑을노래합니다

三、西班牙舞曲 —에드워-드 나포라브닉曲— 『파랑고』

『나포라브닉』은 『체코』의사람 『파랑고』는十八세기경에 남미(南米)에서 건너온무곡(舞曲)으로 『카스타넷트』를 울려주는八분의三박자의곡

라디오 프로

一月九日(月)

◇午後六時 하-모니카、기타-二重奏와아코-디온、멘돌린二重奏 一、하-모니카、기타-二重奏 1、國民歌謠 [illegible] 가、[illegible] 2、家庭音樂 [illegible] 가、마이올드켄타키-홈- 나、올-드 뺵래죠- 二、아코-디온 하-모니카 金坡園 기타-、맨돌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滿洲情報 ◇同六時四〇分 뉴-스 [illegible] ◇同七時 뉴-스 [illegible] ◇同七時二〇分 講演「[illegible]」 [illegible] 安東赫 ◇同八時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에마누엘·멧텔 ◇同八時三〇分 新作이야기 「幸運」 [illegible] ◇同九時 京城歌謠 一、[illegible]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의番組

一月十日(火)

◇午前六時五〇分 [illegible] ◇同一〇時一〇分 [illegible] ◇同一〇時三〇分 [illegible]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東)하-모니카 [illegible] ◇同一時五分 家庭時間 「世界女性五題」(二) [illegible] ◇同四時 뉴-스 [illegible] ◇同六時 童話 「[illegible]」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겨울나시길이야기」 尹[illegible] ◇同七時 뉴-스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大)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同十時 [illegible]

조선음식례찬
비타민·씨의 효능

② 세부란스病院內科 李輔英

전념병과『비타민씨』

요새 겨울에 만히 생기는어린아해병으로『지푸테리아』백일해에도『비타민씨』를 만히 공급하면 치료가 잘되며 또폐염이라든지 장질부사 적리 급성중독때에도『비타민씨』를 응용하며 또동통(疼痛)으로『비타민씨』를 충분히 공급하여도 잘게는 암(癌)을 접촉시혀도 잘발생되지안는다고합니다

이밖게 위궤양 임신 구루병 등 여러방면에 이비타민을응용하고잇습니다

이것으로 보더해도『비타민·씨』는 얼마나 우리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치료에 업서서는안될것을 아실것입니다

전장과『비타민씨』가 어떠한판게가잇는가

구주대전때 괴혈병의 원인과 예방을 알엇스면서도 불란서와 동부전선에서는 이병의 발생을보앗고 영군(英軍)의『메소포타미아』파견군에는(一九一六年)칠천오백명이괴혈병(壞血病)이되엇고 인도병(印度兵)은[illegible] 이병에걸린사람이 일만사천명이나 되엿다고합니다 이원인은 야채와과류 우유를전장에 보내지못한 까닭입니다

그리하야 요새전쟁에는 괴혈병을 막기위하야 만반의준비를 하는것입니다 이준비가 업스면 어떠케찻우겟습니까 또어린아해를 기르시는어머니되시는분은더욱 주의하서야합니다 어머니의젓을먹는 애기는이병에 걸리는일이업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되시는분이 충분히『비타민씨』를섭취하서야합니다 더군다나 인공적으로 기르는 어린아이는 무슨 방법으로던지『비타민씨』를 넉넉히 섭취하게 하여야합니다

또 칠팔세된 아이가 한가지만을 조하하며 야채를 먹기실허하는아이도『비타민씨』를 섭취하는 방법을 강구하서야할것입니다

◇

이상은『비타민·씨』가 어떠한것이며 우리인간에게 어떠한작용을하는가를 대략말슴드린것이며 다음에는 우리 조선음식과『비타민·씨』가 어떠한판게를가지고잇는가를 말슴드리려합니다

고초 이것은우리만이 제일 조하하는 조미료일것입니다 어째서 예전부터 우리만이 조하하얏는지 그때부터『비타민·씨』가 만히 함유하야잇다는것을 알지못하얏슬것이지만 일상 조미에 고초를 썻다는것은 참으로 기이한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상에 고초가 빼진것이업슬만치 조하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배추김치 깍둑이 고초장, 무엇할것업시 고초가 빠지는것은업습니다 우리가이와가치『비타민·씨』가 제일만히 함유된고초를 이와가치 조아하니 튼튼할수밧게업습니다.

례를들어말하면 사람이 제일 겁내는 적리 장질부사를 그다지 겁내지안코 집에서 아모러케 치료하야도 잘낫지안습니까 이것도 한리유가 잇는것입니다 우리가 일상먹는 음식에는 비타민씨가 만으며 또고초를 조아하는까닭이라고도 할수잇습니다 그나 그뿐이겟습니까 모든전염병에 잘걸리지안는까닭도 여기에잇다고 말할수잇습니다

고초닙 이것도 고초에 다음갈만치『비타민씨』가 만은것입니다 고초닙으로 나물을 하야먹는다든지 김치를 담거먹는다든지 하는것 이다른나라 사람에게서는 볼수업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지못하고 이귀한고초닙을 그대로 버리는분이 업지아니하가 마시고 잘 이용하시면 그만한 이익이 잇슬것입니다. 고초닙을 가지고 슬쩍디처서 나물을 하여먹는다면 날로먹는것보다 약이할(二割)이 나줍니다.

『위아토니-』가되는 떡의과식
반드시무김치와함께먹을일

떡은 보통밥보담 수분이 적고 그대신 함수탄소(含水炭素)가 만흔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떡한덩어리와그만한 큰밥한덩어리를 노코비교해보면 떡이 밥의이삽배는됩니다 그런까닭에 떡을만히먹으면 속이든든하고 잘내리지안습니다 더구나 떡이 조금 설익은다든지하면 더구나 오르내리며 소화가되지안습니다 그리고『위아토니-』(胃弱)가생겨서 고생하게됩니다

그러나 무를가려서 섞거먹으면 그속에『지아스타-제』가잇서서 소화가 잘됩니다 떡을과히먹어서 속이 거북할때는『지아스타-제』를먹고 한끼쯤굴머서 위를쉬게하는것이 조흡니다.

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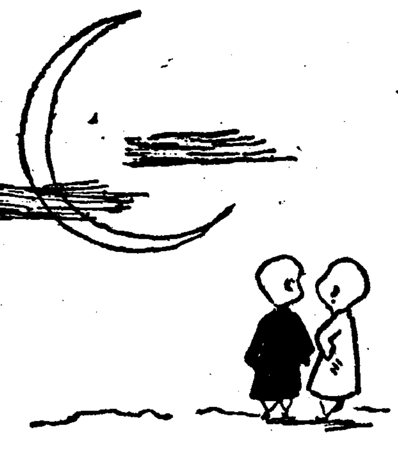
『달나라에는 사람이안산다지』

『그러래』

『어째그럴까』

『커젓다가도 저러케이그러지니 무엇이고간에 어떠케살어』

(글과 탁윤창의)



長篇小說 愚氓 【200】

朴泰遠 作 洪祐伯 畫

쫏기는몸 (5)

양평으로 나려간 전영호 일행은 그날밤을 교도 신병득의 집에서 쉬엇스나 역시 마을사람들의 이목을 끄리어 이튿날 저녁때 전영호는 장봉자만을데리고 신병득의 집 뒤 산막속에가 은신하기로 하엿다.

그가 산막속으로까지 장봉자를 이끄러 드리는것은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든 그게집이 자기에게 엿서 진한 존재이엇던 까닭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잇서 봉자와 가튼 여자와 행동을 가티 하는것이 여간 불리한것이 아님을 전영호는 누구보다도 잘알고잇섯다.

그러컨만 여자편에서 전영호를 떨어지지 안는것이다. 여자는 물론 자세한 내막은 알길이 업섯던것이지만 사태가 범상한것이 아님은 짐작이 잇섯다.

그는 이제 어떠케 대원섭파 언제 만날수 잇슬것인지 여영영 다시 만날수 업슬 경우의 제 신세는 생각만 하여도 떡하고 보잘것 업슬것만 가탓다. 시골잇슬때 음난하기로 이름이 낫던 장봉자—한번 대원섭을 알자 외가집으로 그에게서 만족을 어들수 잇섯던 봉자는 그와 떨어지기가 실키 때문에 오래비 장동오와 상의하고 마침내 구경독파 심봉사 두사람의 손을 빌어 본남편인 맹서방의 목숨을 빼서 버리기조차 하엿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와 한번 떨어질때 자기의 압길은 그대로 캄캄할것만 가티 생각되는 장봉자다.

하기야 전영호편에서도 달리 어떠케 조처라도 한다면 또한 모를 일—, 만약 아직 그대로 데리고 잇다 하면, 역시 산막속에 함께 기거하는 밧게는 업섯다. 우선 차림차림 한가지만으로도 시골부녀와는 크게 다른 그를 그대로 신병득의 집 안방에다 두어 두기가 불안하지 안흘수 업섯던것이다 그래, 그는 산막속에 봉자와 단둘이 은신하고 잇기로 마침 서—, 아침 일찍기 신병득이를 세워던 것이나, 그보다 압서 서울로 올려보내 붓것을 잇지는 안하였다.

그날밤에 자기가 격근한 나머지에 칼을 빼여 결영이놀을 겨우엇슬때 자기의 팔에가 잔뜩 매여달려 그를 못하게 하던 천이화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골육의 정에서나 온것일것이요 저의 아비 첨주부와 더부러 삼십년동안 교를 밋고 교를 위하여 일하여온그라 경찰에 가서도 그리 쉬울게 입을 열어 교비를 누설하지는 안흘것이다 더구나 천인화는 참말 교의 비밀—백도교이때의 외갓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전연 백지다 비록 경찰이 얼마나 그들 부녀를 준엄하게 추궁하는 일이 잇드라도, 그들에게서 끌어낼 비밀다운 비밀이 도무지가 업슬것이다.

그러나 그러한것만을 밋고서 언제까지 마음 노코 지낼수는 업는것이다. 기민한 경찰의 일이라, 어떠한 곳에서 단서를 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범죄가 백일아래 들어 날는지 그것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는 신병득이를 다시 서울로 보내여 정보를 어더오게 하는것과 동시에, 한편 으로는 현재의 사태만이라도 알리우는 편지를 심봉사로하여금 사리원 백준만에게 써서 부치게 하엿다.

궁금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루가 또 지나고 다시 이튿날 나지 되어슬때, 황황히 도라온 신병득이는 경찰의손이 이미 엥정정 본부에 뻐치어 그곳에남아잇던 장동오를 위시하여 칠성이 모자와 갈복이가 모조리 검거를 당한듯십다는 보고를 전하엿다.

그러나 그보다도 좀더 놀라운 일이 잇섯다. 그것은 사리원에 준만의 수하되는 사람이 십여차자왓다가 때가 마침 장동오 이하 본부의 식구들이 모조리 검거를당한 직후라 그대로 그물마저 경찰에 검속을 당한듯 시픈 형적이 잇다는것이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하면 어제 잠시도 이곳에 머물러잇슬수는 업는일이엇다. 전영호는 어제야 칠이나 되어서야 뒤늦게 벌렴사에게 기별을하여 주었을 그개 누우치지안흐면 안되엇다.

이번에 본부로 시어교도를 이끌고 올리온것이 대체 누구인지는 모른다 하여튼 그는 그의 몸에, 벌려사의 서신을 지녓슬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검거의 손은 다시 사리원으로 뻐첫슬것이요, 그러타 하면 그 뒤에나 그곳에 들어갈 자기의 서신으로 하여 또 반드시 경찰은 양평에다 손을 내여 노흘것이 아니겟느냐?—

전영호는 미간을 찌푸려 얼마동안 혼자 생각에 잠겻다.

星州郡 金山 鳳鳴 鑛主 小路鳴一
星州郡修倫面 多鶴鑛業所 鑛主 岩切重雄 技師長 三浦宏 所長 尾形 ... 北栗太郎 三浦孝 ... 松山 ...
星州郡草田面龍鳳洞 龍鳳鑛業所 所長 佐口金三郎 會計 狩野傳 書記 金東旭
星州釀造社 社長 都文煥 船南釀造場 主 金重鍵 大家釀造場 主 張瑾海 伽泉釀造場 主 成鑛植 修倫釀造場 主 張基卓 長山釀造場 主 朴魯吉 碧珍釀造場 主 呂完永 月恒釀造場 主 李宗和 明浦釀造場 主 金基守 南面釀造場 主 崔永哲
星州郡 大家面事務所 龍岩面事務所 月恒面事務所 草田面事務所 修倫面事務所 碧珍面事務所 船南面事務所 伽泉面事務所 職員一同
船南面梁谷洞 有志 李淵述 面協議員 李錫祚 有志 李大錫
龍岩面竹田洞 大星山鑛 鑛主 吳佐京 李相殷 金贊甯
龍岩面竹田洞 州成鑛山 鑛主 崔寅興
船南面 道東金山事務所 金重鍵
修倫面新波洞(天方) 金敬奎 金鎭奎
星州郡龍岩面上新洞 喪中欠禮 文熺承
星州面京山洞 裵乃成 電話二五番
星州邑內 星州布木商組合
慶尙北道星州邑 星州精米所 電話二九番
星州邑內 星州印刷所 主 尹安石
星州邑內中央通 中央商店 主 金大得
金山 喪中欠禮 韓相駿
面協議員 李奎寅
崔鍾允
船南面 權憲圭 金德周
船南砂防事業區 佐田 ...
大家砂防事業區 石... 大... 金...
碧珍砂防事業區 [illegible]
修倫砂防事業區 文 ... 申... 德...
大鳳砂防事業區 越南一 玉川清吉
星州郡星州面禮山洞 都仁煥
星州邑內 株式會社 星州畜產商會
星州邑郡廳通 高等洋服 最新流行 白華堂洋服店 主 李鎭成
星州邑內中央通 紳士洋服 合同洋服店 主 ...判伯
星州邑內中央通 洋服調製 金昌錫
星州邑內郡廳通 齒科 崔光壽
星州邑郡廳通 正信堂時計店 主 徐四鳳
星州邑內市場通 時計、眼鏡 光明堂 主 權五錫
星州邑京山洞 喪中欠禮 金 ...
星州邑京山洞 星山支店 ...
星州邑內停留所前 李再伊商店
星州邑郡廳前 金庚均
星州邑內 大昌精米所 主 朴甲米
星州邑內 料理 各種 寶... 主 白南...
星州邑內 公醫 朴元涉
星州面禮山洞 面協議員 劉 ...
草田面鳳亭洞 都裕生
星州郡伽泉面 伽泉和信連鎖店
伽泉面倉泉市 雜貨商 白桂香商店
伽泉郵便所長 ... 山 ...
星州郡伽泉面 司法書士 ...
星州郡碧珍面 碧珍和信連鎖店 主 呂相輪
星州郡碧珍市 光洋服 主 李相秀
星州郡碧珍市 穀物商 都仁會
星州郡碧珍面鳳溪洞 面協議員 兪禹永
草田面大馬市場 百草醫生 李...
星州郡草田面大馬市 カマラード寫眞館 主 都達煥
龍岩面文明洞 面協議員 金秋林
船南面官花洞 石鎬璉
道有林星州事業所 職員一同
修倫面南倉洞 崔性福

金化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主 朴在寬 電話一五番
金化郡金化面邑內里 大井農場 李啓河 電話二八番
金化驛前 岩井百貨店 秦柄立 電話一二番
江原道金化驛前 金化醫院 醫師 吳明在 齒科醫院 吳良仁 電話四六番
金化邑內 安東完
金化驛前 各種毛皮 ... 張李煥
金化邑內 司法書士 金鼎鎭
金化邑岩井里 ... 嚴大燮
金化邑內 文房具 ... 李昌威
金化驛前 金化製鹽所 主任 洪性福
金化邑驛前 中央精米所 高尙俊
金化郡金化面岩井里 綢緞 布木商 裕盛和 電話一八番
江原道金化驛前 ... 義盛德 電話一六番
金化驛前 孫師濬
金化郡西面 金原農場 主 李膺德
金化邑驛前 主任 朴在重 電話一八番

順天金曜會
順天邑 硏道舘 徐廷昱
順天邑大手町 綢緞布木 三輪屋
綢緞布木 和信商會 電二九番
順天藝妓券番
道評議員 徐廷祿 順天邑
順天邑事務所
順天邑 三榮古物商會 三榮タイヤ製作所
順天邑 高性彥
順天邑 米穀海產物委託販賣 安周炫
全南順天邑 ... 六和堂乾材局
順天驛前 三成運送店 姜漢哲
順天邑 東亞婦人商會 順天支店 電二〇五番
順天邑 木村屋製菓店
順天邑大手町 順大紙物商會 主 姜福伊
順天邑 尙州屋
順天邑 朝日印刷所
順天邑 寶湯
順天邑大手町 女給採用 カフエー銀河
順天邑 慶南旅館
順天邑本町 孫永元
順天邑 大邱旅館 電一六三番

光陽郡廳 郡守 孫宗植 外職員一同
光陽郡海苔漁業組合
光陽面事務所職員一同 鳳岡面事務所職員一同 玉龍面事務所職員一同 骨若面事務所職員一同 玉谷面事務所職員一同 津上面事務所職員一同 津月面事務所職員一同 多鴨面事務所職員一同
光陽金融組合理事 辻粂次郎 玉谷支所 副理事 金玄植 津上金融組合理事 河村隆一
光陽郡公立小學校 職員一同
津月面馬龍里 朴鍾三
光陽酒造合資會社
玉谷面 安東鎬
楊性植
酒造 肥料業 柳浣洙
光陽郡津上面 蟾居酒造場
玉龍面 ... 徐培欽
光陽海苔檢查所 曺基三
光陽郡 鳳岡釀造場
鄭南燮酒造場
光陽面龍江里 崔載崙
光陽郡文書 黃純模
光陽面道日里 金永鎬
精米 肥料業 孔國元
津上面飛浦里 金喆周
津月面 朴鍾洙
津月面烏沙里 金千壽

安州三和鑛業所
安州無名會

己卯年을 通해 본 政治家 ③

大宰相姜邯贊

湖岩

高麗一代에 文武를 兼備한 政治家는 成宗때의 徐熙와 顯宗때의 尹瓘이, 有名하나 그러나 顯宗때의 出將入相하야 山河再造의 功이 잇는이는 姜邯贊이다 姜邯贊은 말하자면 名相이오 名將이오 또 醜貌의 名人이다。忠烈王때 齊國公主를 놀라게 하던 醜陋의 險相을 가진 宋愔 가튼 人物이 업는배 아니나 아마 宋愔의 險相으로도 姜邯贊의 醜貌를 따를수는 업는模樣이다 千年이 각가운 今日까지도 巷間에서 못생긴 人物을 말할때는 흔이 姜邯贊을 例로 든게

됨 되는것이 아닌가。姜邯贊은 비록 體貌가 矮陋하나 그 性이 淸儉하고 奇略이 만흐며 正色으로 立朝하야 國家의 柱石이 되엇다 때에 [illegible] 大事 決大疑함에 屹然히 邦家의 柱石이 되엇다 安하고 中外晏然하니 사람들이 일으기를 邯贊의 功이라 하엿다 [illegible] 드러나게 되고 國步의 艱難을 當하랴야 命世의 偉才가 나타나게 된다。邯贊의 奇略도 高麗國難인 契

丹侵略에 비로소 縱橫으로 發揮하엿고 그리하야 邦家를 危機一髮에서 건저내는 偉功을 세웟다。太祖以來 [illegible] 北狄契丹은 일즉 渤海를 차지하고 다시 後晋을 아울러 中原一帶를 包括한 大遼帝國을 建設하엿다。그 主聖宗때는 契丹의 國運이 極頂에 達하야 東亞의 最大强者로 天下에 號令하든 前後三次나 高麗에 大擧入寇한 [illegible] 成宗때 初寇에 失敗하게된 契丹은 그 後 顯宗때 再寇三寇하게 된바 特히 再寇로 말하면 契丹主聖宗이 親히 四十萬大軍을 引率하고 [illegible] 國都를 陷落하엿다。康兆의 亂後 國本이 動搖하는데다가 지금도 强敵의 來侵까지 잇스니 참말 王朝에 처음보

는 危機이다。[illegible] 이 難局에 處하야 邯贊이 [illegible] 姜邯贊은 [illegible] 主戰論을 主唱하야 [illegible] 이 危機를 [illegible] 羅州에 [illegible] 邦家는 [illegible] 그 後 顯宗이 [illegible] 「庚戌年間有虜塵 干戈深入漢江濱 當時不用姜公策 擧國皆爲左衽人」이라고 하엿다。世人이 이것을 [illegible] 成宗 [illegible] 그 後 [illegible] 邯贊은 그 人格과 [illegible] 功이 [illegible] 契丹主가 [illegible] 元年임은 [illegible] 그 [illegible] 고도 [illegible] 에 [illegible] 契丹主를 [illegible] 모 [illegible] 所得이 업시 [illegible]

게 되엇다。[illegible] 再寇에 역시 失敗하게된 契丹은 그 後에도 여러번 小入寇를 하엿스나 顯宗九年에 이르러 다시 [illegible] 三次大擧入寇하게 되엇다。이때 邯贊은 七十이 넘은 老齡임에 不拘하고 [illegible] 지고 [illegible] 北面行營都統使가 되어 二十萬八千三百의 大軍을 거느리고 興化鎭(義州)에서 城東大川(古義江)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고 翌年二月에 龜州(龜城)東郊에서 또다시 敵의 大軍을 一擧에 [illegible] 하고 말엇다。契丹의 [illegible] 이 처럼 [illegible] 東亞의 [illegible] 내 面目이 [illegible] 이 [illegible] 名將邯贊 이 一朝에 名將邯贊이 되어 [illegible] 니와 이로부터 契丹의 [illegible] 허지고 [illegible] 이 [illegible] 크다아니할수업다。

學藝

文學建設의 決意와 方法

──現代朝鮮文學의 頂點에서──

❶ 韓 植

어떤意味에잇서 새해의 우리文學은 큰試練의결과만나다고할수가잇다。或은 이큰試練을 거처後日에까지生存할수잇는것 만이의 이름에 값할

『文學』 수가 잇다고할지 어다 政治는 運命이라고 나폴레옹은 말하엿다 藝術도 運命이라고 하지못할가 어떠한 苛酷한運命에도 그에堪當할수잇는것만이 다시말하면 忍耐하는노래를 부를수잇는點達한 것만이 後代의 藝術文學을擔當할수가 잇음을確實하다 이때文學의世界에서는 얼마만한『메타몰포ー제』가 敢行될것이며 또한 할수가잇다 嚴密하게 말하면『毎日이래도 自己를『레포르메ー렌』(改革)할수가잇다』그러나 하나의 記憶은 幾多의屈折한變貌래도 그를 貫通하는精誠한美意識과 헤레네의 後裔로써의 自己의血統을 亡失치못하는곳에 依然하게잇다 그때우리는큰包容과 攝取의 世界에드러갈수가잇스니 激動에도 그러케놀나지안흐며 衰退에도 兩시슬려하지안는 平靜한마음의 所有者가 될수잇다。『지ー드』가 말하는『키에칠』의 美는『모ー릴』이 直接的이고 現在的인 動機가 限界를 가지는데 反하야그는 恒久的 本質的의 기픈 要求를 가젓던것이다。이러한 時期에서

伊太利에 旅行하는途中에서『十年마다變하는『로ー마』가 아닌 永遠한『로ー마』를 보기爲하야라고 斷言해여냇것이다。一時에서 떠나는마음은 永遠에歸하는마음이아닐까。『바레리ー』가 詩學敍說에서『創作活動은 限定할수업는것과의 接觸으로써 生하는것』으로 說明한것이 꼿이것이다 휴ー만도큐멘트로써의藝文의 世界는──나는 이때斷言하여도조타。──『갓즈, 멘쥬』(全的人間)의 그것이며 그것이 될수가잇다。나는 成就에 對하야 말하는 것을 조하하지안홀 것이다。다만//우어ー렌//(願望)만하랴는것이다。聰明이 안하는것이다。理想의 新體制때문이다。

새로운이데아와 새로운天代의藝術은 恒常이와가튼 揚場가우데서만 創意되여갈는것을藝文의 //욕ㅡ 푸라우//는 그事實 雲霧를넘어치고보면 現世의重壓한 雲峰들과 그부리를가타한다는것을, 알드, 그러케困難하지안타。모든것을 受容하는 精神은 어에서발생한다。나는 새삼스럽게 盲膨치도안는다。다만忍耐할뿐이다 이곳에서 새로운藝術에의決意가잇지안흘까한다。나는陣痛을 두려워서 痛哭하자 안흘것이다。더욱 陣痛에서 呻吟하는 소리를 떠들어 내는것으로 어떠한 포ー즈를 입내내고 십지도안타。『빠ー렌』와 가티 모든 苦悩를知悉하면서도 그러한

混亂을 말하며 混亂의 坩堝를 말한다。深淵을 말하는것도조타 그러나 永遠히 다음과가튼 眞實도잇지말어야하겟다。새로운무엇을 創造할때 努力과發見과 形成과 生長은 그와가튼 카ー오스와 深淵가운데서만된다는것을。이것을빨리깨달은者는 幸福잇는사람이라할까。

痕跡 다。이것이『아포로』的靜謐타고하드래도 겨울을 넘어갈 新春의마음이아닐까한다。沈潜가운데서의情熱。글로부터自然으로생겨나는技術。이에서 偉大한藝術의 個別的方法이 스스로의길을 發見할수잇슬것이아닌가。

限界 를 넘는『키에칠』의 美의 追求者는 또한 하나의 創造的 性格을 가진이 될것이아닐까。歷史는 되푸리하지안는다。恒常새로운것의 創造만이 이世界에서는 高貴한 特權을 가진다。그것은 一時보담 永遠에 限界보담 無限에 忠實하는데에 참하는 마음의 所産이기때문이다。『푸라톤』이 그의 理想國으로부터 詩人을 追放시킨것은 當然한일이다。何故오하면 그의 理想國도 지금와서보면 歷史的限界에서는 생각할수업는 그의政治의이데아의 나라엿기 때문이다 그리하야 새로운 무엇인가를 胎動시킬때에만『메타몰포ー제』의 意義가 잇다。그때에도 그어떠한때와 마찬가지로 自己形成은『呻吟바튼』時間에도 時計의 바늘은 움지긴다』로 될것이다。

『絶望할수업는사람은 살을 끈치지안흐면 안될것이다』라고한『괴ー테』。그러한『괴ー테』입을은져 晩年『외이마ー루』生活로부터 新時代를 宣言하는

新春文藝選後感

一 記 者

해마다 한두사람의 新人을뽑아 우리文壇에 躍躍한適石으로내여보내는 新春懸賞文藝의考選이란 실로 斯道에 關心하는이들의 注目의 對象인 同時에 또한그考選의任에當한 選者로서는 心血이한쩍 쏠리는 緊張과 興奮의 몸스이라고아니할수업다 今年만하더라도 應募作品總數五千三百六十二篇中에서 一等세篇과 次席 다섯篇과 其他兒童作品다섯篇을 뽑았다는것은 雖事中에도 雖事엿거니와 또한

이로써 그嚴選의 度도 짐작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募集項目中 戲曲、文藝評論、時調、童話、童謠가튼 것은 한전의 入選作도 내이지 못한것이 遺憾이기는하나 三年來로 本社新春文藝考選方法은 時時 다른데와가티 作品追隨의 一等羅列主義가아니라 一等水準을 미리 現文壇의 最高水準에 견우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다른 一等들끼리 對比해서 考選하게됨으로 이러한 解決用은 避할수업는일이다 이러한意味에 잇서서 今年에 入選된 作品들은 이야말로 可謂 精金美玉이어서 天下의 大方家에게 내여 노하도 조곰도 부끄러울것이업다。 그럼으로 詩나 童謠에 잇서서一等과 次席이란 그다지 懸隔한 差異가 잇는것이 아니라 그저 그 鍊磨된 工程에 多少의 硏鑽가 잇슬뿐이지 마는 童謠『한밤분』의 洗練된 諧調라던지 詩『여름산』의 豐富한 格調가 지적로 우리말의 韻文的妙諦를 體得하지안코서는 미치지못할 境地에 이른것이다。 끄트로 小說에 對해서는 본래選者에 屬한 作品이 宋夫氏

의『해바래기』崔仁旭氏의『山神靈』五正芳氏의『강배』金大洙氏의『暮隷』金永壽氏의『素服』石鏡生의『月下吹笛圖』이엿는데 再選에서 金永壽氏의『素服』과 石鏡生의『月下吹笛圖』가 入選되면서 다른 다섯篇은 落選이되엿스나 이 다섯篇의 作品도 한두거룸만 더 나어갓스면 決코 二三等을 남에게 미루울것이아니엿다。 그리고 金永壽氏의『素服』과 石鏡生의『月下吹笛圖』는 두作品을 여러가지로 檢討해보아도 실로 伯仲을가리기 어려울만큼 比等하게優秀한 作品이여서 決選에서는 選者들끼리서도 物議가紛紛하엿스나『月下吹笛圖』는 應募規定인 住所、姓名이 明記되여잇지안코 다만 石鏡生이라는

匿名만 씌여잇스므로 本報社會面에 石鏡生의 住所 姓名을 알려보내라는 社告까지 내엿스나 그所定期限을 지나고 不得已 또 아무 소식이업스므로 不得已『月下吹笛圖』는 失格이되고 金永壽氏의『素服』이 一等으로當選된것이다。 이作品은 이미 選衆中에잇스니 비록 一節一節만 보더라도 이作品의 卓拔한 面目을 推察할수잇겟지마는 全篇을 通해서 流暢한 叙述과 緊密된 結構와 適切한 描寫가 短篇小說로서 거의 上乘에 屬한다는것을 選者로서 斷言할수잇다。 끄트로 入選, 落選을 莫論하고 모두 精進하여 우리文運이 더욱 昌盛하게되기를 바랄뿐이다。

學藝小抄

本報當選作家祝賀會

本報新春懸賞文藝에 一等當選된 金永壽氏의『素服』當選祝賀會를 左와如히 開催한다는바 多數의 參席을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一月九日(月)午後五時
一、場所 市內 金剛園
一、會費 二圓
一、發起人 朴英熙 崔秀任 尹石重 鄭芝溶

新春文藝一等當選

素服 (三)

金永壽 作
鄭玄雄 畫

그러니까 지금 메리고 사는 계집인 용녀를 만나기전, 말하자면 다섯해가 여섯해전에 죽은 안해처럼 「제발 정신을 버쩍 채리구 이를 깨물구 돈을 벌우」하고 허구헌날 턱을 치받히던것도 이바꾸지 못할 느긋한

넘전 일이다。 양서방의 용녀에 대한 지식이란 그다지 넓지지 못한 것이어서 용녀의 고향은 충청도 어디고 열세살에 시집을 가서 열아홉에 겨우 서방을 얻만하게 되려니까 고만 고생을 하게되느라고 파부가 되고, 그래서 확집에 남의 집이나 살려고 서울로 뛰어온것이라는 겨우 이런것에 더 지나지 못했다。

용녀는 이쁘다。갸름한 얼굴에 또 색깔은 히여서 암전했고, 오똑하게 따진눈이간혹 매섭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케 밉지는 안헜고 코스이너무 오똑해서 제말맛다나 그것때문에 팔자가세지 모른다 허지만 그코가 가장 뛰어나는 물건이분 명한것은 지금 들어 잇는 안데이씨도 늘어멈의코가 부러워 부러워하는것만 보아도 늦히 짐작할수가 잇다。 다만 형이엿다

섯질때문이엇다。 그럴때마다 양서방은 어제나 잘 소리를처가며 둡시 라평하엿고 안해는 안해대로 날뛰엇다。 그러듯 양서방의 팔을 빌면 불아켜가튼 안해가 이틀도 잘 모르는 병에 죽고 혼자서 그낭저낭 얼마를 살아오다가 우연히 참말 우연히 새혀가가 어디서 드난살이 한다는 지금 데리고 사는 용녀를 벼문 친구들의 연술 연술도 알아서 그 것도 돈 十원이나 착실히 써 가며 다시 살림이 탐시고 재린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벌써 三

면 사마귀도 그다지 내버릴것은 아닌상 싶했다。 사실 털어노코 이야기 하자면 양서방이 큰 슴해나 볼리는 용녀를 안해로 마지한가 장 으뜸가는 이유는 우선 용녀가 이뻐던 때문이다 용녀도 이것을 알앗다。 (제ㅡ길헐! 계집이 이뻐면 뭣갑을 팍 허거든──) 지금 양서방은 바지춤에 손을 너어서 볼두덩을 스을 네리문지르며 한숨을 석겨 이런 생각을한다。 그것도 인젠 나이가 먹어그런지 요새는 좀 웬만큼 먼데나 갓다오면 아랫배가 켱겻다 그래서 밤이면 이러케 한참은 질러야 됏고 시원햇다。 양서방은 또 손을 너허서 불두덩을 더듬는다。 그리고 (내팔짜에 그런 계집이 파남허지)ㅡ 이런 약한 생각도 해 보다 웬만큼 뭇직한것만 가지고는 아랫배가 좋처럼 시원치가 안라를 큼는다。 조금 더 아래로 손이 간다。 아래로 갈수록 시원해진다。 다리를 쭈욱 뻗어본 다 더 시원하다。 더、더、손이 아래로 간다。 그러다가는 번번이 양서방은 고만 정신치 못한 생각을 하엿고、그래서 용녀헌테도 가끔 핀잔을 맛고 그랫다。 양서방은 얼른 짐겁을 해서 손을 빼고 입맛을 쩍 쩍 다시며 머리마드로 팔을 빼더 담뱃갑을 더듬엇다。

바지춤에서 손을 빼고 입맛을 쩍 쩍 다시며 머리마드로 팔을 뻬더 담뱃갑을 더듬엇다。 계집이 아주 이러케 대담해 저서 바람이 낫것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닌상십고、또 그놈하고도 벌써 양서방과 안 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엇던 것이 분명한것은 양서방도 벌 문 친구한테서 들어 잘 아 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은너 무 심하다。 양서방은 다시 어 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그놈이란 올해、아까 나제용 녀하고 바루 요 골목 모퉁이 에서 시시덕거리던 상고머리 한 친가게 주인녀석이다。 꼭 그러 라 양서방이 직접 목도하엿스 니까 제아모리 앙큼한 용녀 도 이젠 꼼짝할수 업스리라。

新刊紹介

◇春秋 (季刊版)第一輯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三三 朝光社 振替 京城一六一二二番 定價二十五錢

◇野談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八三六番 定價三十錢

◇新世紀 第一號 發行所 京城府西小門町三八 新世紀社 振替京城一九三四四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佛教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樓町四四 佛教社 振替京城五四八二番 定價二十錢

◇農民生活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二錢

◇專賣の朝鮮 一月號 發行所 京城永樂町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二十五錢

◇蜂(? 詩誌)第四輯 發行所 京城府敦岩町四五五의三一三 蜂社 振替京城二五九〇九番 定價二十五錢

◇信仰世界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景昌里四五의二 信仰世界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幼年鮮報 十二月號 發行所 平壤府西城里一〇의二의四九 一千三百社 振替京城一八七〇番 定價十五錢

◇四海公論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三十錢送料二錢

賀正

慶北線豐山驛前 豐山面職員一同

安東郡豐川面九潭市場 九潭釀造組合

安東郡豐川面河回洞 喪中欠禮 柳景夏

安東郡豐川面河回洞 柳時慶

安東郡豐川面九潭洞 九山養蠶組合長 兼豐川面協議員 金百淵

安東郡豐山面魯洞 郡農會通常委員 安東商工會社取締役 權奇百

慶北線豐山驛前 酒造場主 朴月善

慶北線豐山驛前 豐山農園主 金在顯

安東郡豐山面幕谷洞 醸造場主 權在鳳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面協議員 金永仁

安東郡豐山面槐亭洞 醸造場主 宋熙植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金洙東

慶北線豐山驛前 大同洋服店兼綿絲布木商 黃河中

豐山大同精米所主 兼醫師 李用寅 振替口座豐山五七四九番

安東郡豐川面廣德洞 李在賢

慶北線豐山驛前 豐山醫院長 李俊杰

慶北線豐山驛前 豐山旅館主 全景穆

安東郡豐山面幕谷洞 安豐醸造組合長 權重學

安東郡豐山面 豐四金融組合 理事 金泳鎭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郡農會通常委員 金鍾晋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豐山支部長 兼代理店 權丙南

安東郡豐川面葛田洞 權泰承

慶北線豐山驛前 豐山醫院 壽山醫院

安東郡豐山面 柳長夏

安東郡豐川面 權準杓

安東郡豐山面五美洞 喪中欠禮 金元在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金炳千

安東郡豐川面葛田洞 李應倬

安東郡西後面耳開洞 金昌仁

慶北線豐山驛前 喪中欠禮 蔡鴻宇

安東郡豐川面新陽洞 豐山學校 會長 安敎卨

安東郡豐川面新陽洞 全甲伊

安東郡豐山面幕谷洞 金大鎭

安東郡豐川面道陽洞 郡農會通常委員 金驥煥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金富漢

安東郡豐川面九潭洞 喪中欠禮 金珏洙

安東郡豐山面新陽洞 消防組頭 振興組合長 權淵標

安東郡豐川面漁潭洞 李豐鎬

安東郡豐川面漁潭洞 醸造場主 黃大應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郁成

安東郡豐川面葛田洞 張占出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永淵

慶北線豐山驛前 潘潤浩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面協議員 金漸東

安東郡豐山面五美洞 金禹燮

安東郡豐山面五美洞 豐四金融組合評議員 金秉穆

安東郡豐山面五美洞 金宛秀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金義漢

安東郡豐山面素山洞 金國東

安東郡豐山市場 日光商店主 柳相默

慶北線豐山驛前 協城商會

慶北線豐山驛前 永信商店 權東燦

慶北線豐山驛前 禹孟源商店

慶北線豐山驛前 尹泰赫

慶北線豐山驛前 柳碩佑

慶北線豐山驛前 和信精米所

慶北線豐山驛前 面協議員 全炳璇

慶北線豐山驛前 日進精米所主 權泰鉉

慶北線豐山驛前 豐和醫院長 邊斗漢

慶北線豐山驛前 食料雜貨 肥料商 崔秉昌

安東郡豐川面河回洞 面協議員 柳時鍾

安東郡豐川面河回洞 柳時演

安東郡豐川面河回洞 柳濬佑

安東郡豐川面河回洞 柳泓佑

慶北線豐山驛前 永信自轉車店主 崔永鳳

安東郡豐山面安郊洞 面協議員 李進熙

安東郡豐山面安郊洞 李棫

安東郡豐山面新陽洞 消防組小頭 金清漢

安東郡豐山面新陽洞 消防組副組頭 鄭承寔

安東郡豐川面九潭市場 東裕商店主 金龜淵

安東郡豐川面九潭市 面協議員 金琣淵

安東郡豐川面九潭市場 安東商店主 金瑚淵

安東郡豐川面九潭市場 金鍵淵

慶北線豐山驛前 博愛堂豐山支店

慶北線豐山驛前 東日商店

慶北線豐山驛前 廣信商店

慶北線豐山驛前 相信商會

安東郡豐山面幕谷洞 裵壽永

安東郡豐山面幕谷洞 裵宙永

安東郡豐山面五美洞 金完在

安東郡豐川面佳谷洞 權五健

安東郡豐山面五美洞 金尙燮

安東郡豐山面下里洞 面協議員 李宗烈

安東郡豐山面西微洞 面協議員 黃燦睦

安東郡豐山面幕谷洞 權永均

安東郡豐川面漁潭洞 沈宗燮

安東郡豐川面葛田洞 張仁煥

安東郡豐川面道陽洞 面協議員 林鳳述

安東郡豐川面葛山洞 柳相夏

安東郡豐川面錦溪洞 振興組合長 姜錫祚

安東郡豐川面錦溪洞 姜錫泰

安東郡豐山面安郊洞 金項九

安東郡豐川面錦溪洞 振興組合幹事 全石兆

豐四金融組合 理事 谷本弘文

安東郡豐川面錦溪洞(塔里) 農村振興組合長 全永興

安東郡豐川面錦溪洞 黃景源

安東郡豐川面漁潭洞 金澤文

安東郡豐川面漁潭洞 農林振興組合長 金星煥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大鎬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面協議員 崔永鳳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守石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守文

安東郡西後面耳開洞 權正睦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炳鳳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允壽

安東郡豐山面上里洞 朴麟煥

安東郡西後面耳開洞 金昌仁

安東郡西後面耳開洞 權富永

安東郡西後面耳開洞 權道學

安東郡西後面耳開洞 權多喆

安東郡西後面耳開洞 權順喆

安東郡西後面大豆西洞 金碩極

安東郡西後面耳開洞 金琴石

安東郡豐山面幕谷洞 權泰東

安東郡豐山面幕谷洞 權重穆

安東郡西後面校洞 金仲顥

安東郡西後面校洞 金太年

安東郡豐山面檜谷洞 喪中欠禮 金在仁

安東郡豐川面葛田洞 權尙洛

安東郡豐川面道陽洞 喪中欠禮 柳海觀

安東郡豐川面葛田洞 金斗鳳

安東郡豐川面葛田洞 金斗福

安東郡豐川面葛田洞 趙鏞哲

安東郡豐川面葛田洞 趙濟珉

安東郡豐川面葛田洞 權瑋洛

安東郡豐川面葛田洞 張三出

安東郡豐川面漁潭洞 金澤璇

安東郡豐山面新陽洞 黃占實

安東郡豐山面新陽洞 朴致一

安東郡豐山面檜谷洞 李亨龍

安東郡豐山面上里洞 李敎璡

安東郡豐川面葛田洞 醸造釀商 趙鏞洛

安東郡豐川面道陽洞 任壽生

安東郡豐川面道陽洞 鄭大興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重九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鐸映

安東郡豐川面九曲洞 金八植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寧萬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赫裕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金博淵

安東郡豐川面九潭市 金永驥

安東郡豐山面幕谷洞 金德顯

安東郡豐山面五美洞 朴鳳煥

安東郡豐山面五美洞 申鳳星

安東郡豐山面五美洞 林璣洙

醴泉郡虎鳴面本洞 崔永鎬

安東郡豐山面五美洞 崔範錫

安東郡豐山面西微洞 具守宗

安東郡豐山面西微洞 林學文

安東郡豐山面新陽洞 林道明

安東郡豐山面西微洞 林雲成

安東郡豐山面新陽洞 禹世源

安東郡豐川面葛山洞 金容得

安東郡豐川面葛田洞 趙後邑氏

安東郡豐川面道陽洞 崔在景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景五

安東郡豐川面漁潭洞 金河振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炳秀

安東郡豐山面幕谷洞 金載均

安東郡豐山面檜谷洞 李栢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煥默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順東

安東郡豐川面仁今洞 黃景秀

安東郡豐山面檜谷洞 金在鎬

安東郡豐山面晩雲洞 李命碩

安東郡豐山面檜谷洞 裵晟煥

安東郡豐山面安郊洞 潘潤盛

安東郡豐山面檜谷洞 李守學

安東郡豐川面道陽洞 金千一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金秉淵

安東郡豐川面葛山洞 朴永昌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贊植

安東郡豐川面葛山洞 金商燮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永甲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容煥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永俊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容奎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永僖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寧吉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七錫

安東郡豐川面九曲洞 權五雲

安東郡豐川面申城洞 金容慶

安東郡豐川面葛山洞 金文宿

安東郡豐川面葛山洞 金東植

安東郡豐川面葛山洞 權大浩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金珠淵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金鍾駿

安東郡豐川面九潭洞 金在禎

安東郡豐川面道陽洞 林鎬七

安東郡豐川面道陽洞 柳百一

安東郡豐川面道陽洞 林孟源

安東郡豐山面西微洞 韓三壽

安東郡豐山面竹田洞 李準夏

安東郡豐山面新陽洞 簡易消防組 後援會長 林萬七

德川 德川互有會

公醫 閔庚贊 德川醫院

平南德川邑內 崔仁瑚

平南德川邑內 甲種料理 鮮一館

朝鮮運送株式會社德川取引店 土木建築請負業 丸全商會 金元明

德川邑 最勝亭

平南德川邑內 文興洋服店

德川 西山重太郎

004401

求禮

冷泉里 金澤均

求禮郡廳 各産業團體

求禮産業組合 電話一七番 木材部 鮮丸木材 坑木材 製材 製紙共同作業場

大本山華嚴寺 住持 姜在源 監務 李善薰 法務 黃成根 財務 金學輪

智異山泉隱寺 住持 朴準瓛 總務 崔秉漢 財務 許暢燮

五美里 朴炳現

燒酎 藥酒 濁酒 求禮酒造合名會社 社長 金鍾弼 電話求禮七番 振替釜山八三九七番

五美里 朴彩琪

大田里 金順伊

求禮百貨店 主 吳約瑟 支配人 金亨柱 電話二二番

求禮郵便所長 盧足英

求禮警察署 電話二八番

全南道議員 高在涓

求禮口驛前 ㊀求禮運送店 代表者 金鎭 [illegible]

三和屋和信連鎖店 主 安寅吉 支配人 金永舜 電話八番

京城府長橋町三番地 廣德商會 玄容健

求禮郡初等學校教職員一同

光州府大正町 金性權

白蓮里 梁蓮子

求禮醫院長 申鎭雨

有隣醫院長 公醫 金安植 電話一六番

鳳北里 安定善

光義面大田里 金斗星

山城里 金炯奭

壽坪里 韓秉赫

求禮邑內 柳子儀

無名氏

外谷釀造場 朴圭顯 具貞祐

山洞釀造場 尹昌舜

甲山里 許煥

把道里 鄭昶根

放光里 李康燕

光義面溫堂里 朴宗來

龍巖齋 崔錫洙

求禮邑內 片倉生命事務所 主任 李丞浩

漢方醫 烟波里 李文玉

土旨面五美里 朴萬祚

壽坪里 韓東錫

求禮面職員一同

艮文面職員一同

光義面職員一同

土旨面職員一同

求禮登美藥房 金在烈

馬山面職員一同

龍方面職員一同

東京洋服店 主 金鎔九

山洞面職員一同

馬山水利組合

院村市 山洞山茱萸出荷組合

求禮邑金融組合 理事 高田十郎

南鮮合同電氣會社 藤田傳市

弘濟醫院 姜德善

司法書士 朴奎源 電話三三番

山城里 金炯栗

求禮邑內 共信酒造場

金哲洋服店 金相喆

三星洋服店 主 金鴻俊

山洞面大坪里 韓吉洙

⑪荷主組運送店 李泰東商店

華嚴寺境內 上久保九市郎

全羅線求禮口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求禮口代行營業所 代表者 林奉實

求禮邑內 安芳善

大田里 金完斗

謹賀新年

米穀檢査所 中桐次男

元方里 朴仍圭

求禮邑北門通 芝圃醫院 朴洙彬

求禮邑內 三神堂乾材局 主 趙宗烈

求禮邑內 金英澈

各社蓄音器特約店 本銃砲附屬品一式 成功堂時計店 主 姜永豐

求禮邑內 鳳城洋服店 主 安鐵貴

求禮邑內 明月舘 主 郭永九

求禮邑內 古物商 卞參鳳

山洞面內山里 李起永

冷泉里 材木商 金墉洙

院村市 葵樹旅舘 主 晋判順

發明家 尹秉赫

文廟直員 柳興容

廣川

洪城郡長谷面月溪里 月溪鑛業所

忠南廣川 泰榮鑛業所 李鍾泰

忠南廣川 絹布卸商 德潤 主 李鍾德 電話一六番

洪城郡洪東面大坪里 尹柱台

忠南廣川 朝鮮料理 廣春館 金明玉 金英花 藝妓 鄭英淑 鄭璟心

忠南廣川 穀物貿易 金龜漢 電話二五番

忠南廣川 回春醫院 院長 金達永 電話二一番

忠南廣川 和信連鎖店 主 朱承魯 電話三三番

忠南廣川 絹布洋品 新興商會 主 宋智洙

忠南廣川 穀物貿易 天一商會 主 李錫求 電話一四番

忠南廣川 土木請負業 韓圭錫

京南線廣川驛前 穀物貿易 ㊄黃圭完精米所 電話四六番

洪城郡結城面 共榮精米所 主 崔光宇 李殷榮

京南線廣川驛前 忠南精米株式會社 廣川出張所

忠南廣川 穀物貿易 廣信商會 黃起淵

忠南廣川 廣川醫院 院長 吳[illegible]周

忠南結城 崔仁甲

京南線廣川驛前 各種護謨靴都散賣 大陸商會 電話四二番

忠南廣川 貿易委託運送 鷄林商會 ㊀鷄林運送部 主 金復鉉 電話三六番 振替京城一五五三三番

忠南廣川甕岩港 穀物貿易 ㊣三益社 主 辛喜俊 電話二四番

京南線廣川驛前 電氣工事請負業 一般附屬品販賣 廣川電工舍 柳駿熙 宋福萬

忠南廣川 韓相洛

長谷面 林聖喆

忠南廣川 李鍾奭

京南線廣川驛前 ㊉三星洋服店 主 李熙喆

洪城郡洪東面 新東鑛業所 李至然

忠南廣川 廣川酒造株式會社 電話二七番

忠南洪城郡廣川面淡山里 黃寶鑛山事務所

忠南廣川 絹布洋品 東一商會 主 安輪洙

忠南廣川 金鍾鶴

忠南廣川 ㊂昌新鐵工所 大山機械商會 黃致寧自轉車店 ㊁貨物自動車部 電話三二番

東一銀行洪城支店廣川出張所 具藥房廣川支店 大東商會 利井商會 李鍾迷商會 廣新商會 德華商會 廣興製菓店 興新商會 三星紙物舖 兪鎭愚商會 公州食堂 廣仁昌 福來東

忠南廣川 影美堂寫眞館 東洋寫眞館 半島寫眞館

結城精米所 廣信精米所 廣川精米所 表學孫精米所 電話二八番

洪城郡 廣川面 長谷面 結城面 職員一同

吳敬燮 文昌錫 林炳世 朴鏞戊 黃善赫 李晶會 李秉英 李誠學 李東薰 李錫熙 李俊珪 李白能 金炯[illegible] 金丙煥 金東河 金敦鉉 金眞福 無名氏

喪中欠禮 趙源大

喪中欠禮 兪鍾岳

新義州府區域擴張 今春初에實現?

新編入地區域範圍에는兩說 三橋川限界說이有力

【新義州】다사도철도(多獅島鐵道)개통이 목전에 임박하여오고잇는 만양국현정의 항만축조(港灣築造)와 또 압록강수력발전의 굉장한사업이 착착진척됨을 따라 신의주부는 국책상의 공업지대로 등장과 인구가 격증될것이 약속되는 오늘날 부의구역을 확장하야 압날에 대비함은 신의주의 급무인데 이에대하야는 벌써 작년부터 총독부와 평안북도와밋 신의주부당국자가 설계연구를 거듭하여오던바로 금춘조 실현이 될모양이다 그런데 이구역확장이 어느정도로되겟느냐함에 대하야 전하는바에 의하면 전부윤 촌상(村上)씨의안(案)인 용암포(龍岩浦)다사도(多獅島)를 포함하야 주위백여리에 이백오십만인구를 포용하는안은 그규모가 너무크므로갑자기 실현되기가 어렵고 토목과(土木課)측의안인 삼교천(三橋川)까지를 포함하는안이 실현될가능성이만타고한다

運河、公園新設等 新年度의大計畫

신의주부 토목과에서는 소화십사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큰운하(運河)두곳과 공원 다섯곳을설치하고 이에따라 대대적으로구역정리를 행하는외에 공회당아르로부터 신의주역에 이르는 도로와 수비대(守備隊)아르로부터 미륵동(彌勒洞)우편소에 이르는 도로에 포장공사를 행하기로되얏다 그런데 이공비는 도비(道費)로부터 일만원의 보조를받고부비로 이만삼천원을 계상하얏다 그외에도 도로포장을 계획하는데 신의주부에서는 모든정세와도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야 토목과의 사업만은 기어히 수행코저하는중인데 금년신의주부의 예산은 종래에비하야 비약적 격증을보이고잇다

풍절된것으로보고 상당히 오렬할모양이라하며 역시개최기간으로는 이월오일까지라한다

불작난하다가 小兒一名燒死

【全南支社發】오일오후 네시경에 광주부 서정(光州府西町)사는 정동영(鄭東榮)(?)은 불작난을하다가 의복에 불이 붓튼므로 놀래여 직시 소화를하엿스나 허상이심하므로 곳 천상채병원에 운반하야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윤일오후한시에 무참히도 절명하엿다한다

北川氏篤志

【城津】성진시내 본정(本町) 북천삼책(北川三策)(?)씨는 사일오전 성진서(城津署)에 구보서장(久保署長)을 방문하고 설을당하야도 먹을것업

는 가장엇지 한사람들에게 구합겟다고하며 금이백오십원을 내여노코 도리갓다고한다

巨額의寄附內諾 平南工校誘致에朗報

【平南支社發】평안남도가 십사년도에 해결하려는 가장큰문제인 공업학교의 실현을 위하여는 연말 결성된기성회에서신년초부터 구체적 활동을개시하려고 대기의시세를 취하고 잇는바 무엇보다도 중대한점은민간측에서 약삼십만원의 기부를어더야할것인데 이문제에 서광을던지는 명랑한뉴-쓰가 새해초두부터 오고잇스니 확실한방면에서 탐문한바에 의하면 기성회에서 활동을 개시하기도전에 도내모유력자(아직이름은 특히밝키지안홈) 양씨가 동교의가능성이 확실하게되면 각기 오만원씩을기부하겟다는것을 언명하엿다는것으로 이로서 기성운동의기초는서는세음이라고한다

忠州郡利柳市場 絕對로移轉不許

忠北加藤産業課長談

【忠北支社發】충주군이류면대소원리(忠州郡利柳面大召院里)에잇는시장은 수백년의 오랜역사를가진 우수한시장인데 최근 동시장으로부터 약삼정가량 떠러저잇는 동군주덕면신양리(周德面新陽里)(속칭상거리)에 무허가의 시장이설치되여 시일을제정하야 개시하고잇는바 동신양리시장은 대소원시장으로부터 불과 삼정밧게 되지안는곳에 신시장이 설치되게된 관계로 오랜역사를가진 대소원시장의 경제적타격이 실로심대하다는바 만약 현재의 대소원시장이 폐지케된다면 동이류면의 존폐의 문제에까지 미치게되므로 동면유지들은 시장확보에대하야 맹활동을 계속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동시장문제에대하야 충북도 가등(加藤)산업과장은 기자에게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이류면시장은 오랜역사를가지고 잇슬뿐아니라 우수한시장으로서 동시장을 타처로이전치안흐면안될 아무런 이유가업다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주덕면신양리에 무허가시장을설치케하야써 동대소원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하고잇슴은 전연충주군당국에서 독단적으로 한것이지 도에서 간여한것은 아니다 동시장은절대로 이전할의사가업다 신양리에서 시장행위를 하는것은 위생 풍기파계상 관할경찰서장이 법령에의해서 적당히취체할것이다운운

스리團一網打盡

【鎭南浦】진남포경찰서에서는신춘벽두대규모의「스리」단을 검거하여 엄중취조중이라는바 진남포비석리 노기락(盧基洛)(?)을 수괴로한후 주소부정의 박상의(朴尙義)(?) 이동초(李東初)(?)두명이 부하가되여 작년십일월초순이래 철도구내와 유희장등 사람의 출입이 번잡한곳에서 현금다액을 도적하여 전부유흥비에 소비한것이라고한다 지금까지자백한것이 이십여건에 금액도 상당한액에달함으로 계속엄중취조중이다

大邱藥令市 五日부터開市

【慶北支社發】수백년동안 전통을자랑하는 대구의명물 약령시(藥令市)는 작오일부터 개시되엿는데 사변이후 당재(唐材)가 수입제한된관계로 다소한산할염려가 업지안엇스나 총독부상공과의알선과 대구 한약상조합(大邱漢藥商組合)의 활동으로 약재가풍부히 준비되엿슴으로 비록가격은 고등되엿스나 작년처럼

初等敎員의自給策 師範學校實現부터

全道民의協力邁進이緊要

아는것은 힘이고 또한희망의 원천이다. 알아야 살아갈수잇고 아지못하는자는 오직패배자(敗北者)가 될뿐이라는 견지에서보면 우리는 그무엇보다 교학에 전력량과 심혈을 경주할 필요가잇슴은다시노할필요가 업다 여기에서 기자는 경남도의허다한 제현안중에서 먼첨 사범학교 설치를 긴급동의로 제의한다 경남은 신문화수입의 관문에 처해잇스면서도 아직초등교육의 균점(均霑)의 혜택을밧지못하고잇다 일본내지와 일위대수(一葦帶水)의 지호간에잇스면서도 국어 해득자는 전인구의 일할미만이라한다 이것으로 보드라도 교육경남의실력을 저울질할수잇스며 경남초등교육의 빈약을 알수잇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잇섯스리라 생각되나 일언이폐지하면 경남은 비교적 교육열이 넘각한듯시보인다 그입레로는 다른도에비하야 사립학교가아조적으며 이에서도민의 교육열을 짐작할수잇다 지금이부십구개군에 설치된 조선인 공립소학교를보면 일면이백칠십오학교에그학급은 일천사백사십학급이니 이백사십오면에평균하면 일면일교제가 완성되고 면교가 남지안는한심한 상태다 그러므로 경남에잇서 초등교육기관의 확충강화는 긴급한일이라하겟다

이제지난소화십이년동의 도내소학교아동 입학상황을보면 모집정수이만명에 입학지원자는 근배인 삼만구천명이다 이가운데입학자가 일만구천여명은 문맹지옥에서해매게되엿고 이밧게 입학난의심각을예상하고 지원조차 단념한학령아가 또한적지안흔것이니 도내 수용능력의빈약에 일경할수박게업다 그러나 당국에서는이에대하야 어떠한계획을 세웟던가? 의무교육실시기단축의 전제로 십개년확충안을 오개년으로 단축한경남도 확충안을보면 계획만료후라도 전학령아의 오십여퍼센트박게 수용지 못하게되엿스니 그래도만족하다고 할수업다 그리고그계획에따르는교원의수급(需給)에 논급안할수업다

지난십삼년도중에 경남도에서 새로채용한교원은 이백수십명인데그중 팔십명이 이입교원이라한다 우리는 이입교원의자격과 소질 내지교육자격태도를나무래는것은 아니나 다만 그들은전례로 보아 아직 조선사정에밝지못하고 예산관계등 관계잇스니 특히 교원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매진할것을 요구해마지안는다 여기에서 신년도내에경남에 사범학교설치를 절규하는바이다

사범학교가 경남에업다고 교원배정이 업슬리는업다. 그러나 그도(道)에 사범학교가 잇다면 그지방 번영상에도 관계가잇고 또한 졸업생은 대부분은 도내에서 수요하고 이에따라 교원난은 감해질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장 유지가능한 사범학교를 금년중에설치코저 만반의 준비를 요구한다 금년도중에 사범학교유치운동을 하고잇는곳은 강원도 춘천과 경남상도이라한다 경남에서는 진주(晉州)가 유력한후보지가 되어 벌써 수년전부터그운동을 개시하고잇는중이라한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진주에서는 사범학교 설치에 대한 준비금까지 적립하고 지금대기중이라한다 이러한기회에 경남이일치협력하야사범학교유치에 적극적 운동을개시하여금년에는 기어히 설치를 보도록 매진그전과를 거두어야될것으로 밋는다(계속)

(釜山支局 下鎭甲記)

우리道의 當面課題 慶南道篇

大端川建設進捗!

用地買收工作에着手 舊端川中心整理도近近着工

【咸南支社發】대단천(大端川)기획은 아모지장업시 진척이되야 본아오, 룡명의 전입거원들이매 목하오 수용지의 각필조사를 바삐하고 잇는데 이것이 뭇나면서부터오는십오일부터 【백만원】어치의 용지와 지상물건의 보상등 매수공작을 하기로되얏다고한다 그리고 이와동시에 금년봄부터는 공장기구를 제할 소위구단천(舊端川)을 중심으로하야 대시가지계획의 전제인 가로선(街路線)등의 시가지정리설계에 착수할터이라고한다 국비로지행될 방파제(防波堤)공사는 그공사비가 대장성(大藏省)의사정을 못마치엇스므로 벌써 실시는 결정적이다

感激某出征軍曹 水災民에救金寄贈

【咸南支社發】수해이재민들에게 대한 각방면의 구제금은 비오듯쏘다저서 감격을사아내고잇는데 요지음함흥부에는 북지출정중의 일군조(軍曹)로부터 성의의 이십원이 기탁되야 더욱감격하고잇다 북지 ○○부대에잇는 이촌리춘(二村利春)으로 재해민에게 빵의한조각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간곡한편지까지 너허왓다고한다

南浦某惡德家主 突然家賃을引上

借家人側非難이衝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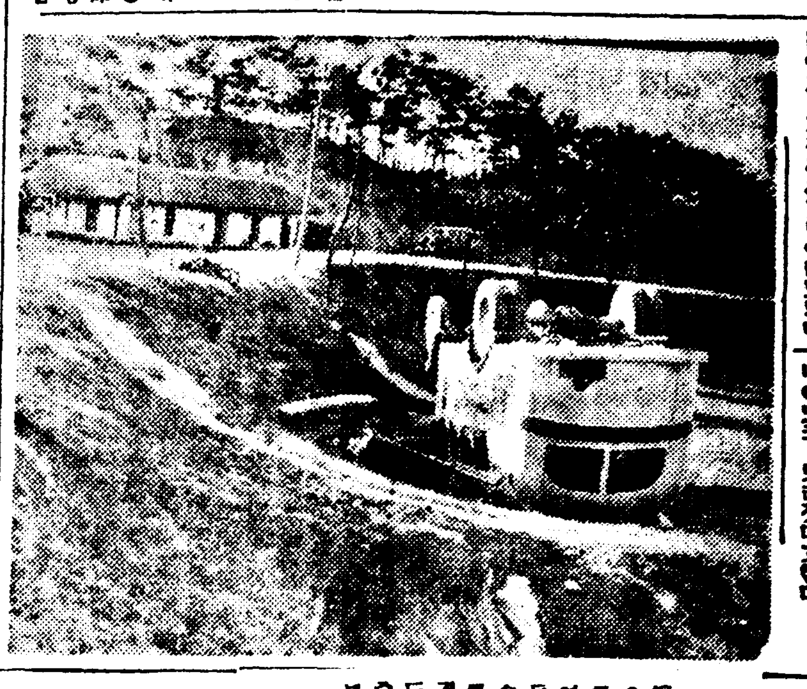
【鎭南浦】조선에도 차지차가법령이 실시케된이때 진남포에는 엉터리업시 집세를올려 사회문제를일으키고잇는 악덕지주가잇다 약진도상에잇는 진남포항은 작년이래 인구가격증하여 작년가을부터 개항이래처음보는 주택난을보고잇거니와 진남포비석리모씨는 부내에다수대가(貸家)를 가지고잇다는바 방세업등을 당하여 돌연 일개월십이원가량씩밧던집세를 일약사오원식이나올려노코 만일올려주지안는 경우에는 즉시철거하라는 동기에도 악착스러운 중지를발하엿다고한다 차가인들은 때가때임에 몹시 그와가티 엄청난 집세를 더내라함은 비인도적행동이라고해서 비난성이 충천하다고한다

經濟警察官 眞狀嚴密調査

진남포에는 돌연 악덕가주가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번고롭게 하고 잇거니와 이에대하여 진남포경제경찰계에서는 그와가튼가주는 단연용서업시 탄압할방침으로 계원들을 시키려하여 상세한상황을 조사중이라는바 정당한이유가 업는이상 단연 철퇴를 가할방침이라고한다

忠北物價委員會

【忠北支社發】충북도물가위원회에서는 연료(燃料)금속제품과피혁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코저 오는십사일 오전열시부터 도청제일회의실에서 제삼회물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한다



뻐스顚覆事故 人命被害는輕傷

【江陵】강릉주문진간을 운행하는 강릉(江陵)합자회사뻐스 강제오백구십팔호는 지난팔일오후강릉군연곡면 고개에서 어린아이와충돌되자 고만전복되어 차체의파손을입엇스나 다행이 운전수를비롯하야 승객의 부상은극히경하얏다하며 중상한 어린아이도 극히경한 부상으로치료중이라한다 (사진은 「뻐스」전복현장)

自動車庫에小火

【水原】지난팔일 오후한시경에 수원읍남수정(水原邑南水町)에잇는 내자동차회사차고에서 불이 이러나 일시 대소동을 이르켯섯던바 다행히 자동차와 화물에 연소하기전에 사원들의 민활한 활동으로 십분만에 꼿진화되엿는데 때가 백주요 시내치는 수원읍 중교통에 인가가많은관계로 가고오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엇스며 주민들의 놀램도 여간아니엿섯다한다 발화원인은 차고에 숫불을피우고 자동차 수선을하다가 잘못되야 그가티 불을내엿섯다한다

鎭南浦貿易額 二億圓突破

開港以來新記錄

【鎭南浦】약진대진남포항 소화십사년도의 수이출입무역총액은 예상과가티 마침내 이억원을돌파하엿다 일지사변의 조흔영향을비더 대지무역은 현저히 증진되여 그결과는 진남포항 외국무역의 최고기록을지엇고 다시 십이월중 이출에 잇서서는 외국무역액 이천삼백사십만구천원 대내지무역 이억삼백육만원 총액 이억이천육백사십삼만 천원으로 전년에비하여 사천백사십칠만원 즉이할이분의 격증을 보히고잇서 개항이래 신기록을 지엇다는바 금년은 대외무역의 왕성을 예상하고 일층약진할것으로 판측된다고한다

金屬品公正價決定

【平南支社發】십오일오전십시부터 평안남도청에서 본도물가위원회의 금속품연료 전문위원회가열리는바 이회에서는 그간밀리워오던 제품등 금속품의 가격을결정하기로되엿다 그리하여 동일오후 두시부터 열리는 물가위원회를통하여 도지사에 답신하여 본도내의금속공정 소매가격으로서 연료, 직물에뒤이어 불일내로공포케되엿다 그리고 동일에는 연료에 관하여도 연료전문위원회에서 저번에공시한 가격을재검토하여 개정을요하는것이 잇스면 다시본위원회 자문에부하리라한다

警察始務式擧行

【慶北支社發】경북경찰부에서는 작일에 경찰시무식(警察始務式)을 거행하엿는데 오전구시도청에집합 전원이 무장한후 대구신사참배 동신사에서 대구서(大邱署)앞 동장에 모여 동지사의 고사가잇슨후 계속하야 경북경찰부장의훈시 황국신민서사제창 만세삼창으로 장엄리에 마치엿는데 이것이 다른도에 유례가업는 행사로써 신년벽두에 경찰관의 의기진작상 가장의의기픈 행사라한다

釜鐵管內貨客收入 黑字만百萬圓

【慶南支社發】지난해십이월까지의 부산철도사무소관내의 운수업적은 여객수입 사백팔십오만오천이백원 화물수입 사백삼십사만칠천이백삼십원 합계구백이십만이천사백사원에 예산액을초과하기를 백사만이천구백삼십이원의 격증이다 그격증의원인은 만주국과북지화객이살도하기때문이라한다

萬明鏡

마산부만정(萬町)모의원의사는석정(石町)조모(曹某)의 장남병을 오진하여 결국은 치료가느저생명을 빼겻다고 ◇ 사람의생명을마트는 의사로서의책임이나 ◇ 의사도 사람이라 기술적으로 실수는 용서할것도 잇거니와 진료에성의까지 업섯다니 더욱큰문제 ◇ 부모들은 이에분개하여 경찰에 설유원까지 제출한것은 당연한일 (馬山)

까솔린車衝突로 乘務員二名死傷

甲山雲興面下의慘變

【咸興】함남갑산군운흥면(甲山郡雲興面)용암작업장(龍岩作業場)에서 목재운반으로 사용하는「까소링」차를지난사일 아침시경에 운전수 이간남(李干男)이가 운전하여가지고 목재를 떠나생장으로 오든도중 생장서 약한키로가량되는 지점에서 그전날에 방해하여다노흔 목재를 만재한바 구니와 충돌되여 운전수는가슴파부에 중상을 당하야 졸도된것을 즉시 응급수당을가하야 가지고 생장역발 오후세시오십분발기차로혜산진(惠山)에가서 도립병원에 입원하엿다가밤열한시경에 절명되엿다하며 조수정진용(鄭眞容)이는 오른다리에 중상을 당하엿스나 생명만은 구하리라하고 고원 이철환(李哲煥)은 경상을 당하엿다

北靑郡新昌面新昌里 運轉手 李干男(死亡)
北山郡雲興面以下不詳 助手 鄭眞容 重傷
甲山郡雲興面新興里 雇員 李哲煥 輕傷

淸津에零下廿六度

【咸北支社發】함북청진지방에는 지난십일오후부터 영하이십오도 이상의 혹한이습래하야 시장에잇는 어류동물들이 모다얼어 만흔피해가생기엿는데 게다가허유의폭풍으로 거리의통행이 거의두절되엿스며 나진(羅津)방면에는 수도의적설로 지난오일에 궁동자도 불통되엿는데 대한을십오일이나남겨노코 이러케치위 압날이염녀중이다

百日咳에 コデステ 博士推獎 品質本位 定價二十錢부터 各地藥店販賣中

カゴメケチャップ 최상의 品質・最大の売行

늑막염 可驚할根治藥! 乾濕性肋膜炎에百發百中 藥價十圓 아모리難症이라도 써도안나시분은곡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一二二九九番

化粧理髮器具 鏡台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一九八八五

土地家屋建物保管代行 營業項目 土地家屋擔保貸付 建築資金貸付 土地家屋管理分讓 土地家屋評價鑑定 土地家屋賣買紹介 火災保險代理事務 設立 明治二十九年 資本金 壹千四百三十萬圓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 六三六八一 營業案內進呈

無料로通知합 喘息 百日咳의분에게 저는永年頑固한喘息으로고생하야 온갓藥을써보앗스나 모다아무効果도업서 十餘年來痛苦한喘息 때문에辭退하지안흐면안되는不幸한身上이되엿습니다 그러나遇然한일로이번어떤 先生에게서天保年間의偉人으로有名한 藥을 그곳服藥하야던바 奇妙한 遺方으로된 특히기도 끈지고 나는삼일도 그러든喘息도 이상히곳全快되엿습니다 너무잘듯는 것이 으로써 病의 痛人과 兒童의 百日咳에도 施하야 보앗던바 모다 저와가티全快되여 感謝의 말을 만히바덧습니다 기침病으로 괴로워하는분은 곳 書面으로申込하야주시요 내가全快한 妙藥을無料로通知하겟습니다 廣島縣安佐郡龜山村 森本作市

烏捕網 烏捕網皮具製造卸商 極上絹絲製 カタログ進呈 其他網絲、絹絲各種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海鮮商會 振替京城一〇三五九番 電話本局二四一七〇番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〇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平和·軍需産業併進
長期建設의理想을實現코저
八田新商相의抱負

【東京】新商相의 經濟政策도 池田政策을 全面的으로 踏襲하고 時局의 進展에 併行하야 經濟統制를 展開케 될것이다 卽 生産力擴充, 輸出振興, 物價調整, 轉業對策等의 各部門에잇서 大藏省과 密接한連絡下에 池田商相時代의 政策을 延長하고 同一方面으로 發展케할方針인데 右에關하야 新商相은 如左히말하엿다

池田商相은 大藏大臣을 兼攝하고 經濟相의役割을 다하엿는데 나는 商相과拓相의 兼攝이므로 今後는 大藏省과 密接한連絡을 가지고 池田商相時代의 政策을 全面的으로 踏襲하고 圓滑히 遂行코저한다 다만時局은 一刻一刻으로急變되므로産業統制도時局에併行하야 進展된다 이內閣의 使命은 長期建設에잇는바 長期建設에는 軍需平和兩産業을 維持發展케할 必要가잇다고 생각한다 勿論 時局收拾은 急을要하나 그러타고 그것만에熱中하야 平和産業을 不顧하야서는안된다 現在는 軍需産業의速度가 빨르지만 두가지가 同時에動하여야만한다

生産力擴充은 企劃院을 中心으로立案中임으로商工省으로서는그것을 忠實히 實行할뿐이다 貿易, 物價도 池田商相時代에 原則이 決定되엇슴으로 그것을發展식이면조타

轉業對策은 滿洲支那를 包含하야 考慮코잇다 卽從來의移民은 農業移民이엇스나 最近大阪에서 商工移民을 實行코잇스니 그成績을보아가지고 將來는商工移民을 考慮하겟다

未曾有産業豫算
生産力擴充方策具體化
戰時貿易의全面的振興

【東京電話同盟】商工省은 昭和十四年度에잇서 未曾有의 七千六百萬圓이라는 産業豫算을 計上하얏는데 八田新商相은 新內閣의 方針대로이것을 踏襲하고 戰時産業政策의 根幹이되는 明年度物資動員計畫과 生産力擴充三個年計畫에 卽한諸施策을 强力且實效잇게 移하는同時에 戰時産業과 平和産業과의 調整에 關하야 積極的考慮를 하게되엇다 如斯히하야 生産力擴充方策의 具體化와 併行하야 戰時貿易의 全面的振興에도 注力 할터이다

右二大方策遂行에 關한 新規要求中重要事項은 實施期에 入하야 急速히 施策하고 그實効를 收코저 하며 그準備를 整備한것이며 大體如左하다한다

一、戰時貿易積極的方策에關한것

明一月十日부터 二十四品에目하야 特殊링크制를 實施 하고 我輸出品의 原材料確保의 完璧을期하며 保證金及輸出資本金前貸制損失保證等諸制度의 萬全運用에依하야 積極的輸出振興에資하는同時에如左한施策을急施할것

(一)旣設 哈爾濱、天津、나이로비、매데해린等 海外二十六個所의 貿易斡旋所의 機構를 擴充하는外에 새로히 밧구다—드、멜보른、카이야스、모삼비큐의 四個所에 輸出組合共同販賣所를 設置하고 在荷、販賣、賣込品의修繕、品質의 保證을 하며 또 뻬노스아이렛스外 二個所에 輸出檢査所를 設置케하고 이에保險... (經費二十九萬圓)

(二)輸出入檢査手數料를 引下하야 業者의 負擔을 輕減하고 檢査의 嚴正을 期키爲하야 十四年度부터는 從來의 主要輸出品의 檢査를 增强함(經費三十七萬圓)

(三)輸出品의 包裝改善을 積極的으로 行키爲하야 民間의右改善獎勵其他를 補助하고 改善을 促進함

一、生産力擴充方策에關한것

日滿支一體의 生産力 擴充三個年計畫의 圓滑한 實施를 期하야 十四年度에는 左記施策을 行함

(一)工作機械 工務의 確立키爲하야 새로이 府縣으로하여곰 新潟、兵庫、大阪、愛知等工業中心地에 工作機械檢定所를 設置케하고 이에保助함

(二)從來의 地方機械試驗場補助를 擴充하고 試作을活潑히하야 工作機械의 補助를 하고 試作을活潑케할(經費六十九萬圓)

(三)十三年度豫算에서 準備한 人造石油의 綜合的製造와 工業化를 促進키爲하야 第一年인 十三年度부터 試驗을增加하며 이에積極的補助를 할(經費四百七十五萬圓)

(四)國立인 東京、大阪、名古屋의機械工養成所를 擴充하야 從來보다 二倍의機械工을 養成함(經費二十七萬圓)

(五)鑛山監督局의機構를 擴充하고 新任局長二名을 增加하며 그支所를 盛岡、秋田、鹿兒島、岩見澤에 設置할 豫定

(六)試驗燃料研究所를 本格的으로 施設하고 그達成을期함(經費百五十萬圓)

戰時統制裡에도 耕地價格續騰勢
實收小作料와純收益도增大
農業經營은依然健實
殖銀鑑定課調査

農工併進의大理想下에 前進中인 朝鮮에잇서 農業經營은 果然어떠한 推勢를보이고잇는가? 殖銀鑑定課調査『全朝鮮畓田賣買價格及收益調』에依하면 如左하야 賣買價格도 오르고 實收小作料와 純收益이 모두 增大되어 農業經營의 健實性을證左하엿다

賣買價格
上、中田畓五、六分高 下等은一割內外高

農業經營의 基礎가되는 耕地의 賣買價格과 收益狀況은 農業經濟上 農業金融上 緊急한調査材料인데 殖産銀行鑑定課에서 調査한것에 依하면 (昭和十二年七月부터 十三年六月까지의 期間으로하고 耕地賣買가 가장旺盛한 舊正月前後로부터 五月頃까지의 賣買를 主로하야 調査한것)

本年度의 畓田의賣買價格은米其他農産物이 高價를 繼續하고 比較的利廻가 良好한 關係上投資熱이 盛한것과 一般物價漲騰에伴하야 先高를豫想한去來가잇는때문에 全朝鮮的으로 依然昂騰을 繼續하얏다

그러나 그騰貴率은 再昨年末以來의 金融方針特히 戰時統制에 抑制되어 賣買價格이 伸惱狀態이엇지만 全朝鮮平均賣買價格을보면

▲畓(百坪當)		比前年	比率
上等	九十四圓	五圓高	五%六
中等	六十二圓	四圓高	六%九
下等	三十六圓	三圓高	九%一

▲田(百坪當)		比前年	比率
上等	三十四圓	二圓高	六%三
中等	二十一圓	一圓高	五%
下等	十一圓	一圓高	一〇%

卽下等田은一割、下等畓은 九分一厘의 騰勢이나 一、二等田畓은 五、六分의 騰貴이엇다

이제年度別賣買價格을 示하면 如左하다

十年間動向 本調査를 開始한 昭和三年以來 賣買價格이 落調를 거듭하다가 昭和六年에 至하야 底入되고 七年及八年은 低調保合、昭和九年부터 騰勢로 轉하얏다 그리고 昭和十年及十一年에는 全般的으로 二割以上의 大幅昂騰이엇스며 十二年度부터는 漸次 動幅이 縮少되엇지만 騰勢는 依然하다

全朝鮮平均耕地賣買價格

	畓上	畓中	畓下	田上	田中	田下
	圓	圓	圓	圓	圓	圓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方別狀況 中等畓의 賣買價格은 中鮮地方이 最高로서 六十七圓이오 南鮮地方이 그다음이어서 全朝鮮平均價格은 六十二圓以上이며 最低로 北鮮地方의 五十圓이다 中等田에 잇서서는 南鮮地方의 二十三圓이 最高이오 中鮮地方이 그다음이고 最低는 北鮮地方의 十九圓이다

最高와最低 殖銀支店所在地域別로 各品等에 至하야 最高最低를 보면 如左하다

		最高		最低	
畓	上	仁川	一九〇圓	雄基	[illegible]
	中	仁川	[illegible]	同	[illegible]
	下	沙里院	[illegible]	同	[illegible]
田	上	仁川	[illegible]	江界	[illegible]
	中	麗水	[illegible]	江景	[illegible]
	下	麗水	[illegible]	春川	[illegible]

實收小作料增加
七分四厘—一割四分三厘

畓의實收小作料는 昭和七年以後 漸次 漸增되어 十三年度도 一分七厘 乃至 七分七厘의 增加이엇다 一方 賣價도 年年昂騰되어 十三年에 잇서서는 前年의五分 騰貴인때문에 換算金額도 七分四厘 乃至 一割四分三厘의 增加이엇다

百坪當小作料

		畓		田	小作料	換算金額
					石	圓
最高	上	裡里			[illegible]	[illegible]
	中	同			[illegible]	[illegible]
	下	同			[illegible]	[illegible]
最低	上	雄基			[illegible]	[illegible]
	中	同			[illegible]	[illegible]
	下	江界			[illegible]	[illegible]
平均	上中下				[illegible]	[illegible]

農振初委員會 今年最初의農村振興委員會를 來十一日午後一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委員幹事及關係官이 參集하야 主로昨年末부터 各委員이 分擔하야 全朝鮮各地方의 時局下에잇서서의 農村振興運動의 實情을 視察中이던報告를基礎로하야 意見의交換을할터이라한다

純收益도亦增加
畓=六分乃至一割一分 田=二分乃至一割二分

百坪當純益金을보면 昭和三年以降 畓、田이 모두 漸減이다가 昭和六年을最低로 其後上昇되엇는데 十三年度도 畓은六分乃至一割一分、田은二分乃至一割二分의增加이엇다

		最高		最低		平均
畓	上	群山	八圓四七	雄基	二圓一〇	六圓七〇
	中	裡里	七、〇二	同	一、五六	四、九二
	下	榮山浦	四、六〇	同	一、九〇	三、二二
田	上	麗水	四、一二	進基	一、三八	二、六六
	中	仁川	二、八三	同	一、〇二	一、八一
	下	麗水	一、九九	江界	一、五八	一、〇六

收益累年比較

	畓上	畓中	畓下	田上	田中	田下
	圓	圓	圓	圓	圓	圓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中銀賣價引上 市中銀 [illegible]

價格을公定
廣範圍物品에
物價委員會積極活動

物價委員會는 滿洲아르미·알마이트製品、皮革製品等에對한 公定價格을 考究中하고 다시 石炭、化學工業藥品을 爲始하야 騰貴하는物價의抑制에 本格的活動을 開始하엿는데 今般에는 고무製品、草履에도 公定價格을 設置하기로하고 目下準備中으로 一月中에는 相當廣範한物品에 價格의公定이 實施될터이라한다

倫敦金塊崩落 八日入電에依하면 倫敦金塊市勢는 一擧에八片二分一低인 七磅八志九片二分一로 崩落되여 換算一匁도 十五圓三十七錢六厘이엇다

湯村農林局長 重要協議次渡東

今議會에 提出되는 日本米穀會社法案에 對하야는 總督府에서도 農林、殖産兩局間에 研究中인바 同會社의設立이 어느程度의 影響을 미칠는지 또內地側이 果然 朝鮮에잇서서 이와가튼 會社의設立을 希望하고잇는가 農林省의 意見을 徵할必要가 잇스므로 十二日 京城發渡東、米穀生産費協議會出席을 機로 農林省과 協議하기로되엇다 따라서同局長의 歸任을 기다려 農林、殖産兩局間에 具體案을 樹立할것으로 보인다한다

滿洲貿易管理 三月頃에實施

日滿實業協會着入報에依하면北支의 貿易管理에 對하야는 客年內에 實現될것으로 觀察한向도잇섯스나 管理의 技術的人的要素의 整備가 未完인때로 今日에 이르럿다 그러나 그實現을볼것은 確實하다하여도 時期에對하야는 昭和十四年三月九日의 舊法幣兌換行效期間 滿了로써 合理的 時期라고 思惟되고 또 中支方面의 金融確立과 貿易管理에依한 北支特貨의 南方移出阻止의 具體的工作을 하여야할 理由도意義를 가지게 되는것이니 此等諸般의 條件이 確立되면 斷行될것으로 보인다한다

鮮銀保定事務所 一月八日開店

鮮銀의 北京支店 保定派遣員事務所는 一月八日 開店하얏다

韓萬熙氏補選 京城商議補充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九日午前十一時부터 役員會를 開催하고 議員 吳重斐氏退任에依한 補充의件에 關하야 協議하얏는데 補充이 必要한境遇에는 選擧에依하야 이것을補充하기로 되어잇스므로 明十日午後四時부터 選擧會를開催하고 次點者인 韓萬熙氏를 補選할터이라한다

○朝鮮製鍊措置=朝鮮製鍊에서는 十二月末로써 下期決算을 끗...

金集中策徹底
强制買上斷行

【東京】石渡新藏相과 記者團과의 一問一答에依하면 如左하다

一、國內保有金의 强制買上은 하고저한다 그러나 그前에國民이 自發的으로 金을내놋는方面에對하야 手段을다한後에 强制買上을하고저한다

一、公債消化는順調이다 將來에依하야 金을集中하고 이것에依하야 資金이 公債로商케하는 方法이 第一조흔것이며 公債의 强制保有는 그時機가아니라고생각한다

金利調整
各行低下傾向

金利調整은新年부터 一齊히 嚴重實施하기로하고 各銀行이모두 自戒의 實을내이고잇는데 이金利調整의 實效는 銀行의資金코스트 低下로나타나 業態를健實化시키는同時에 貸出金利의引下餘地를 加하고잇다 金融團中貯蓄銀行은 英斷的으로一月一日부터 貸付金利의低下를 圖謀하엿는데 그先鞭을잡는 意味에서 各普通銀行方面에서도 一、二厘의引下를볼狀勢에잇다 어느쩌 朝鮮內의金利는 右金融團結成을 動機로顯著히低利浸潤을强化하고잇는데 이效果는 京城보다도特히地方에 恩澤이만흐리라한다

寸鐵

▼……金의集中은 國民의自發的協力이 第一이나 境遇에依해서는 强制買上의方法을 考慮하겟다고 石渡新藏相言明 이잇서서는 안될판

▼……陸內新農相日『農村生活安定策으로서 家庭工業을獎勵』하려다고 適切한일인데 朝鮮서도 一層時急한 問題이잇는지……

▼……八田新商相日『長期建設을爲해서는 平和、重需産業併進이必要』라고 어떠케이것을 調整해갈는지 그手腕을두고 보아야알일

▼……全朝鮮의耕地賣買價格은戰時統制로抑制되엇지만 依然騰勢라는것은 殖銀鑑定課의 觀測

▼……갑도올르고 實收小作料도 늘고 純收益도 늘엇스니 朝鮮의農業經營은如前히健實 農工併進의 새旗人발아래에서도 農을 잇지말사

統制强化嫌氣

年初以來 株式市勢는 漸落一路를밟고잇던 政局의急激한變動으로 東新은先驅로하야 全般의氣配가 惡化되엇는것이 其後平沼內閣의 成立에依하야 政局이 爲先安定을보게되자 一步回復되엇는데 平沼內閣은前內閣의政策을 踏襲할方針이기는 하나 財界의 前途에 對하야는 依然透視難이 尤甚하고 特히平沼首相의 初放送에잇서서 事變의目的을達成키爲하야는 國家總動員體制를 强化하야 諸般의政策을 强行하겟다는것을보고 盆統制가 擴大强化될것이 分明하므로 東新中心으로 一段賣崩되어 드디어 一一七圓九의 昨年最低價를 肉迫하는 低價까지 示現하고 말엇다 그러나 低價에는 恒例의 利喰이 續出하야 休日을 지난今朝는 株不足傾向이 나타나 汪兆銘의 第二次聲明을好感하야 一二〇圓臺에서 漸昂이엇는데 高價에는 積極的買氣가 不添이어서 騰勢는 消極的이엇다

今日의市勢(九日)
株式 少返이나 浮動

前場昂高 今朝는東新一圓高인 一二一圓丁、鐘紡一圓三高인 一四三圓五에 一騰寄付後 東新은 一二二圓丁까지 買進되엇스나 伸惱이어서 結局東新一二一圓八 鐘紡一四三圓五에大引되엇다

後場浮動 後場은 東新不變인 一二一圓八、鐘紡은 二高인 一四三圓七에 寄付後浮動이엇다

積極買氣不起 休日前에 急激하든落勢도 一息되어東新은 一二〇圓關門에서 靜息하엿섯는데 그뒤를이어 今朝는利喰買의 續出로 一騰寄付된後 隱散裏에推移하다가 汪兆銘이 다시公開狀을 發한것을보고 多少의買氣가생기여 東新은 一二二圓臺에올랏스나 其以上의 積極買進은依然警戒되엇다 그러데 汪兆銘의相次的和平聲明이 今後에 잇서서 如何한波紋을 招할는지는疑問이나 如何튼 全然好材料라고는보지못하고잇는株界에는 相...

大株에鐘新上場 【大阪電話同盟】大株取引所에서는 九日商議員會를開催하고 十日前場부터 鐘紡新株를 長期短期兩清算取引에上場 賣買를開始하기로決定하엿다 委託證據金은 長短이모두 一株六圓이다

國債軟調 【東京電話同盟】小口賣物이 紛出하야 五分利債에 物이 注入되어 甲號第一回五分이 五錢低를告하엿스나 其他는 無保險散의保合에 推移하엿다 外貨債도 活氣薄이나 佛貨는 五錢高 米貨六分半은 二十錢高 五分半은 七十一圓丁으로 强保合이엇다

▲甲號五分 一〇三、五〇▲一同四分 一〇三、〇〇▲二回四分 一〇三、〇〇▲十九年物 一〇三、〇〇▲佛貨四分 一九八、九五▲米五分半 三七一、〇〇

期米 難伸難押 釘着

前場膠着 一休今朝에阪地先限三十六圓十七錢인 二丁反落

市場大觀

株……休日을지난今朝는 利喰物續出로 一騰인데다가 汪兆銘의 第二次公開狀發表를보고 買氣漸昂▲그러나 高價飛付買는 依然警戒▲强氣側의材料가 全無는아니라 長早에 먼確實히 株界의 回生起死之藥인모양▲勿論 根治藥이못되고 어데까지나 杞憂的役割을하는데 지나지못하기는하나▲難株에比하면 東新은 依然劃高이니 東新의安定에는 一段의剩落은 難免乎

米……阪地市勢도無選擇人狀態이거니와 當地는 八十二錢인 僅히 一丁變動에不過 此는昭和十四年劈頭의 記念市勢▲此를 保合의 前無後無한記念이라고하면 以後市勢의 暴落에 一縷의希望을 부칠다하겟지마는 한동안別市勢가업슬모양갓다▲一湯米價의 新舊을 當하야 一戰을 辭하라는 決定明하의 大失望▲此에는 一方뿐이아니라 賣買兩方이 모두 亦參其中이니 當分休戰도 可宜▲何如間時日이나 더기다려보자꾸나

福 株式 朝取證券米穀取引員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吉村榮左衛門商店

實收의減收說

昨年의 實收는 一月十九日부터 三日間에 具하기까 터爲始하야 二十日頃에는 實收高의 發表를 見하게될모양인데 一般的으로豫想에比하야 적어도 百萬石의 減收를 豫期하는 豫測說에依하면 第二回豫想과 背馳된것이 多분하는 減收는免치못할것이라고한다 그러나 例에依하면 何時에나 一般의豫想이 背馳되는 일도 적지안흔것이오 또 米價統制에 全力을 傾注하는 政府의發表인만큼 마치 問題이오 또 設或百萬石의 減收를 본다할지라도 最高公定價格에 ...

移出米管理와 朝鮮米의今後

農林省은 拓務省과 提携하야 來年度부터 朝鮮米의 移出管理를 實施하기로決定하엿다고 某消息通은傳한다 同問題는 多年懸案으로서 內地米가 凶作일때마다 發動하려하는것으로 朝鮮으로서는 此를 絕對反對하야 未實現으로 되어오다가 今日에至한바인데 只今은 日滿支「블럭」이 革固히 成立되어 臺灣米에對하야 旣히 移出을 管理하는此際에 朝鮮米의 移出管理도 大勢의 不得已한 立場에處하야잇고 따라서 朝鮮側으로 보드라도 反對할수업다는 理由가 잇슴에 斷行하기로된모양이다 그러데此에一考를 要할것은 內地米作의 每年平均收穫高로 보아서 朝鮮米의 移入을 要하지 안는 年에는 相當히 一千萬石內外의 移入을 하지안코는 內地의需給問題를 解決할 수업슨즉 許可制에 依한다할지라도 例年의 移入에 比하야 別差가 업슬것이오 從하야 涉算에도 그다지 큰影響은 업슬것으로 觀測하고잇다 果如何?

後場不變 後場은 [illegible] 八十一、二錢에서 終始하다가 [illegible]에 大引되엇다

今日財界 九日

◆米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白米(一等)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白米FAQ	[illegible]	[illegible]

◆株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仁川在米增加

一月八日現在 仁川在庫穀物은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八八、五六七叺의 增加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如左하다

▲玄米四斗入 二〇二、四一二叺 五斗入 二〇七五叺▲白米 四斗入 七、九七〇叺 五斗入 二四六叺▲正租 二八二二、八四五叺▲小豆 六五七叺▲大豆 三〇八、八七一叺▲大麥 六〇叺▲小麥 二九、八八五叺▲糯米 一、八七一叺 高粱 七〇六叺 七一叺 一、〇〇〇俵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朝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米正 動機待로 閑散

京城强調 先高觀이濃厚하야 賣方이모두頑强한態度이나 依然히 內地入注不振으로 閑散場面임에도 一部小口側의 必需買로市...

仁川不變

依然한刺戟材料가 缺乏하야 賣方이모두 消極的이어서 商談이闌珊한데 休日前에 比하야 高價에는 保合이엇다 [illegible]

釜山保合

[illegible]

大邱不動

淸算의强調로 [illegible]

群山底堅

[illegible]

木浦下押

[illegible]

南浦港配船中止

鎭南浦港은 最近의 不況으로 流氷이 稀하지만 依然이잇스므로 朝郵는 慶昌丸이 八月同港을出港한것을最後로 當分同港에의配船을中止하엿다 또七月入港豫定의 商船浙江丸도 港口에서돌아가게되엇다

株式 期米 玉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マルヤマ取引店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illegible]

鰯油粕 麥粉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益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局長二二六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京城物價 九日

[illegible]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

◆東京砂糖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